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와 총독부박물관

이성시

I. 머리말

II. 조선총독부와 조선의 고적조사

III. 고적보존정책과 역사적 배경

IV. 조선총독부박물관

V. 맺음말 - 식민지주의와 총독부박물관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와 총독부박물관

이성시(李成市)

I. 머리말

근대 일본은 이민족인 조선인을 통치 지배하기 위하여 朝鮮總督府를 설치하고 조선의 옛 관습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의 일환으로 朝鮮古蹟調査事業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朝鮮史』 편찬과 더불어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고적조사는 일본의 강제병합 이전부터 이루어졌는데, 한일병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설치하여 박물관이 이를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설립 당시 국제 정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제 달성을 위한 명확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고적조사 사업의 내용과 이를 담당한 조선총독부박물관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 사업의 중심적인 기획자로 당시 국제적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에 주목하여 고적조사사업과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역사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조선총독부와 조선의 고적조사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통치와 관련하여 중시하였던 문화 사업으로 고적조사를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해방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자부하고 자찬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는 조선총독부의 고적 조사사업은 '한반도에 남긴 일본인의 가장 자랑할 만한 기념비 중 하나라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¹

¹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古文化の保存と研究: 黒板博士の業績を中心として』(黒板博士記念會, 1953), p. 327; 梅原末治, 「日韓併合の期間に行なわれた半島の古蹟調査と保存事業にたずさわった一考古学の回想録」, 『朝鮮學報』 51(1969.5). 梅原末治의 논문은 藤田亮策과 같은 입장에서 해방 후의 한국인에 의한 비판이 부당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총독부의 고적조사와 보존사업은 이미 1909년 統監府의 度支部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장관이 세키노 다다시(関野貞)를 초빙하여 한반도 전역의 고건축 조사를 위탁한 것에서 시작한다. 이듬해 10월에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세키노의 고건축과 고적조사는 地方局 제1과의 업무로 이관되어 한층 강화되며 1913년에 기초 조사를 완료하였다.²

이와는 별도로 1911년부터 총독부 學務局에서는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게 인류학, 선사학 조사연구를 위탁하였는데 세키노의 연구에서 부족했던 인종적·민족적 조사, 그리고 석기시대의 조사를 보충하는 의미였다고 한다.³ 후지타 료사쿠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세키노와 도리이의 조사는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의 계획과 제안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⁴ 특히 데라우치의 계획 중 주목할 것은 세키노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호화 장정 도록『朝鮮古蹟圖譜』 발간으로, 1916년에 총 4권이 간행되었다.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이어 총독부는 세키노의 고적조사 사업과 도리이의 사료조사 사업을 통합하여 1916년 4월 총무국으로 이관, 조선총독부박물관이 통합하여 관할하도록 하였다. 다음 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총독부박물관은 1915년에 경복궁 내 미술관으로 지은 건물을 사용하여 같은 해 말 개관한 박물관이었다.⁵ 또한 1916년 7월에는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古蹟及び遺物保存規則)’을 반포하고 고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에서 주목할 것은 이것이 일본 최초의 사적보존법이자, 일본 본토에 앞서 식민지인 조선에서 먼저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일본 본토에서는 1919년에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법’이 공포되어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위원회가 내무성에서 조직되었는데, 조선은 이보다 3년 먼저 실시한 것이다.⁶ 그리고 이 법은 이전부터 구로이타 가쓰미 도쿄제국대학 교수가 주창한 내용을 대부분 따르는 것으로,⁷ 구로이타의 보존법에 의한 구상이 식민지 조선에서 앞서 실현되었다.

게다가 이 법제의 시행에 의한 조선에서의 고적조사는 총독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보존 관리뿐만 아니라 행정 사무에 이르는 업무를 총독부 총무국 소속인 박물관이 모두 담당하는 일

² 藤田亮策, 앞의 논문(1953), p. 330.

³ 藤田亮策, 앞의 논문(1953), p. 333.

⁴ 藤田亮策, 앞의 논문(1953), p. 334 참조. 이 조사가 군인이었던 寺内正毅의 發案이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1911년 일본에서 번역된 크로머 경의 『最近埃及』(MODERN EGYPT, 1908)의 서문에서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영국대사관으로부터 크로머의 연설집을 기증받아 한국의 ‘보호정치’에 참고하라며 당시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보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다. 오쿠마의 서문에서 크로머 경은 군인의 신분으로 인도, 이집트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24년간 이집트의 실권을 장악하여 행정, 재정, 교육 등의 다방면에 걸친 공적으로 남작, 자작, 백작으로 승진하며 ‘최근 이집트의 창립자’로서 영광스러운 상원의원으로 국가에 헌신한 인물이라고 소개되었다.

⁵ 朝鮮總督府博物館, 『博物館略案内』(朝鮮總督府, 1936.3); 藤田亮策, 앞의 논문(1953), p. 334.

⁶ 藤田亮策, 앞의 논문(1953), p. 332.

⁷ 黒板勝美, 『史蹟遺物保存に関する研究の概説』, 『史蹟名勝天然記念物』1-3(1915.1) 및 1-6(1915.6).

본 최초의 문화행정이 되었다.⁸ 자체 조사·연구한 확실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동시에 고적 보존을 위한 공사부터 법령에 의한 지정과 금지 등의 사무에 이르는 모든 일을 박물관이 관할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1916년은 고적조사사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였고, 여기에 구로이타 가쓰미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존법은 1912년 이래 구로이타가 주장해온 내용을 따른 것이며,⁹ 그 중에서도 구로이타가 가장 강조하였던 ‘臺帳法’을 적용하였다. 구로이타는 독일의 예로 들어 대장법의 적용은 많은 수고와 노력을 요하는 일이지만 보존 사업의 첫 걸음이며 불가결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¹⁰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에는 이러한 구로이타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8개의 조항 중 4개 조항은 대장에 기초한 규칙으로, ‘규칙’ 자체가 대장법을 골자로 하는 것임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¹¹

총독부박물관이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전담하게 된 것 역시 구로이타가 이전부터 강하게

8 藤田亮策, 앞의 논문(1953), p. 335. 한편 조선총독부박물관에 대해서는 이성시, 「조선왕조의 상징 공간과 박물관」,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휴머니스트, 2004) 참조.

9 黑板勝美, 「遺跡保存に関する意見書」, 『史學雜誌』 23-5(1912, 5) 및 黑板勝美, 앞의 논문(1915) 참조.

10 주(9) 참조.

11 『大正五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1917)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大正 5년 7월 4일 조선총독부령 제52호)

제1조 본령에 있어 고적이라 칭하는 것은 패총, 석기골각기류를 포함하는 토지 및 수혈 등의 선사유적, 고분, 그리고 도성, 궁전, 성곽, 관문, 교통로, 역참, 봉수관부, 사당, 단묘, 사찰, 도요지의 유적 및 전적지와 그밖에 역사적 사실과 관계가 있는 유적과 유물을 말하는 것으로 세월이 오래된 탑, 비, 종, 금석불, 당간, 석등 등에 대해서도 역사, 공예 등 다른 자료로 삼을 만한 것을 포함한다.

제2조 조선총독부에 별기 양식의 고분 및 유물대장을 갖추고 앞 조의 고분 및 유물 중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있는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등록한다. (하략)

제3조 고적 또는 유물을 발견한 자는 그 현상에 변경을 더하지 말고 3일 이내에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이를 지역 경찰서(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대 또는 분견소장을 포함)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 고적 또는 유물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에서 이를 고적 및 유물 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즉시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대장의 등본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송부한다. 앞의 조에서 제출한 고적 또는 유물에 대한 고적 및 유물 대장 등록하는 것은 속히 해당 경찰서장을 통하여 그 내용을 제출자에게 알린다. 고적 및 유물 대장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까지 항에 준하여 물건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 고적 및 유물 대장에 등록하는 물건의 현상이 변경되거나, 이를 이전하거나, 수리 혹은 처분할 때,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는 아래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경찰서장을 통하여 미리 조선총독부에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하략)

제6조 고적 또는 유물에 대한 대장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때는 경찰서장은 속히 이를 조선총독부에 보고한다.

제7조 경찰서장 유실물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장물 발견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신고 사항 외에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증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경무총장을 통하여 조선총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이백엔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에 처한다.

(양식)

등록번호

주장했던 것으로,¹² 이후 일본 본토에서도 이 제도의 시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¹³ 1916년 고적조사사업의 전환점이 되었던 법제상의 정비와 사업의 조직화는 고적조사위원으로 참가한 구로이타의 계획과 발언에 기초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 후 고적조사사업은 1931년 재정긴축정책으로 총독부의 모든 사업이 정체되면서 난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구로이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물관의 외곽 단체인 朝鮮古蹟研究會를 조직하고, 외부에서 조사 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아 학술 조사를 지속함으로써 총독부의 보존 사업을 지탱하였다. 따라서 1931년부터 1934년까지의 고적조사는 사실상 조선고적연구회의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시책은 모두 구로이타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그는 직접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總督과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徳) 총감에게 부탁하여 실현시킨 것이었다. 후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朝鮮古蹟調査報告』 10권, 『조선고적도보』 5권, 『朝鮮寶物古蹟圖譜』 2권의 발간은 모두 조선고적연구회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었다.¹⁵

조선고적연구회는 1931년 평양과 경주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각각 樂浪과 新羅의 고문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소의 연구원들 인사 역시 구로이타가 관여하였다고 한다.¹⁶ 구로이타는 조선사 편찬 사업의 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적조사사업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구로이타가 고적조사에 이와 같은 열정을 보이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그 사업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은 구로이타의 발언과 행동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로이타는 고적조사위원으로 1916년에 황해도와 평안도를 조사하였는데,¹⁷ 그 성과를 일반인 상대로 서술한 것이 「대동강 부근의 사적(大同江附近の史蹟)」(1916)이다. 구로이타는 이 글에서 ‘조선 역사의 출발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해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를 제

명칭
종류 및 형상 크기
소재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혹은 명칭
현황
유래 전설 등
관리보존의 방법

12 黒板勝美, 「遺跡保存に関する意見書」(1912) 제8장 ‘保存法令と監督局及び博物館’ 참조.

13 黒板勝美, 「国立博物館について」, 『新公論』33-5(1918, 5).

14 藤田亮策, 앞의 논문(1953), p. 334.

15 藤田亮策, 앞의 논문(1953), p. 339.

16 藤田亮策, 앞의 논문(1953), pp. 349-352.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의 회상록에 의하면 아리미쓰는 교토에서 구로이타를 만난 뒤에 경주로 부임하게 되었다.

17 『大正五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書』(1917).

기했다.¹⁸ 결론적으로 조선의 역사는 중국의 문명을 가장 빠르게 수용한 평양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땅에 중국 문명이 전해짐에 따라 민족의 이동과 동요가 일어나 일본 민족의 기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 역사의 기원에 대해 檀君은 최근에 형성된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단히 부정하고 있는 점은 구로이타가 1921년 일본에서 한 강연 ‘조선의 역사적 관찰’과도 유사하다.¹⁹

이 논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세키노 다다시의 고적조사를 인용하면서 고고학적으로 낙랑 유적이 있는 평양이 최초의 중국 문화 수용 지역이고, 그곳이 바로 조선 역사의 출발점이라 강조한 점이다. 즉 구로이타는 1923년 제1회 조선사편찬위원회에서 ‘역사는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이 났는지 서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역설하며, 檀君朝鮮, 箕子朝鮮의 평가에 대한 조선 측 위원의 질문들을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와 함께 막아냈다.²⁰ 이처럼 구로이타에게 있어 고적조사는 단순한 유적 조사 및 보존 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선사』의 편찬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²¹

게다가 이러한 사실은 『조선사』 편찬의 중심 역할을 한 이나바 이와키치가 「조선사 연구의 과정(朝鮮史研究の過程)」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그는 당시 고고학 조사가 진행 중인 평양의 낙랑과 고구려 유적이나 경주의 신라 유적 등의 조사 결과가 조선사의 체계를 배양시키고, 한층 더 풍부하게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²² 고적조사에서 중시했던 평양과 경주 지역 조사는 조선사 편찬에 있어 중요한 문제인 ‘역사의 기원’에 고고학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18 黒板勝美, 「大同江附近の史蹟」, 『朝鮮彙報』(1916.11).

19 黒板勝美, 「朝鮮の歴史的觀察」, 『朝鮮』78(1921).

20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1938), p. 15 참조. 또한 구로이타는 앞에서 인용한 「大同江附近の史蹟」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선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작년에 내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무릇 각국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역사의 출발점을 생각하는 것이다. (중략) 또한 단군에 관한 전설도 구월산 부근에 있으나 이는 극히 새로운 전설이고, 새로운 국민의 신앙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평양 부근에서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역시 조선 사람들의 생각에도 평양 부근이 조선의 역사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중략) 이전에 세키노 박사가 고적조사를 실시하여 평양 부근에서 소위 낙랑군 시대의 고분이 다수 발견되어 후한 시대의 거울과 기타 여러 유물들을 발견한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총독부가 발행한 「고적도보」에도 그 결과가 실려 있다. 즉 평양 부근의 평원이야말로 가장 먼저 중국의 문명이 도달한 곳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여기에서 내가 이번 여행에서 연구해 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먼저 중국의 문명을 받아들인 대동강의 평원에 지금도 남아있는 중국의 문명이 어느 정도 널리 퍼져 나갔는가에 대해서이다.”

21 『朝鮮史』의 편찬에 대해서는 『季刊 日本思想史—特集 植民地朝鮮における歴史編纂』76(2010) 참조.

22 “우리(일본)의 조선 연구는 순서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고고학적 탐구가 이루어져 평양에서 낙랑과 고구려의 유적을, 그리고 경주에서 신라 유적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조선사의 체계를 배양하는 일단이 되었다.” 稻葉岩吉, 「朝鮮史研究の過程」, p. 196.

Ⅲ. 고적보존정책과 역사적 배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로이타 가쓰미는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고적조사사업에 누구보다도 많은 힘을 쏟았다. 이 사업은 총독부에게 있어 조선 지배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데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구로이타는 이를 위하여 고적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구로이타가 제안한 조선의 사적 조사와 보존에 관한 정책들이 언제나 일본 본토에 앞서 대담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구로이타는 일찍이 일본 본토에서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해 왔는데, 이는 조선에서 먼저 실시된 후 일본에서 실행되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일본의 연구자들은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을 상찬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앞 장에서 언급한 후지타 료사쿠는 이를 “善政의 상징”이라고까지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구로이타의 “그 땅의 것은 그 땅으로”라는 ‘현지주의’나, 조선의 문화재를 조선 내에서 보존하고 전시하고자 한 것 등은 식민지 통치가 끝난 후에도 조선과 조선인들에게 영원히 자랑할 만한 문화 정책이었다고까지 평가하였다.²³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구로이타의 고적보존정책의 배경이 된 사상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단편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구로이타의 문화재보존에 관한 여러 제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유럽의 정책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로이타는 1908년부터 1910년까지 2년 동안 유럽 각국을 돌며 정세를 시찰하여 각국의 대학 연구실과 도서관, 박물관, 문서관을 조사하고, 이탈리아·그리스·이집트 각지의 고대 유적을 답사하였다.²⁴ 구로이타의 제안은 거의 대부분이 이 당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西遊二年欧米文明記』의 「이집트의 발굴 사업(埃及に於ける発掘事業)」에 잘 드러난다.²⁵ 이를 통해 구로이타가 이탈리아·그리스·이집트 각지의 대규모 발굴, 조사, 보존의 실태를 시찰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미술관, 박물관의 조직을 얼마나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 구로이타는 이러한 현장 기록을 남기는 목적은 일본 학자들에게 발굴 보존 사업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가운데 구로이타가 추진하여 실현시킨 사업도 적지 않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를 바라본 구로이타의 시각이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발굴보존사업을 관찰할 때에는 이집트를 지배했던 나라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사사업에 미

²³ 藤田亮策, 앞의 논문(1953), p. 340, 357.

²⁴ 당시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는 유럽 시찰을 떠나기 직전에 다나가 미쓰아키(田中光顕) 백작의 배려로 궁내성 囑託의 辞令을 얻게 되어, 각국의 궁정박물관, 도서관 등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黒板勝美, 「学芸の守護者」, 富田浩二郎 編, 『田中青山伯』(青山書院, 1917)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朴煥斌씨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²⁵ 黒板勝美, 『西遊二年欧米文明記』(文会堂, 1911.9); 黒板勝美, 「埃及に於ける発掘事業」, 『考古学雑誌』1-6(1911) 및 2-5(1912). 한편 앞의 주 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의 일본 위정자들에게 있어 영국의 이집트 지배는 이른바 帝國主義의 모델이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 영향에 대해 냉정하게 조사하였다.²⁶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세계 열강들이 다투어 그리스 유적 발굴사업에 뛰어들었던 사실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²⁷

즉 구로이타는 2년간의 유럽 여행에서 19세기 이후의 식민지 고고학을 철저하게 배우고 돌아온 것이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 식민지 국가는 ‘매우 거리낌 없는 마키아벨리적 법적 이유에서 과거에 대해 정복과 같은 수준의 애착을 가지게 됨’에 따라, 유적은 ‘박물관화 되어 식민지 국가의 훈장으로서 새로운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²⁸ 구로이타는 유럽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등지를 조사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식민지 열강이 자국에서 혹은 이집트나 그리스, 동남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²⁹

본래 19세기 초반 해도 서구 열강들에게 문명을 보여주는 유적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들은 점차 고대 유적지를 발굴하고, 측량, 촬영, 분석하여 전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국가의 고고학 분야는 강력하고 권위 있는 기구가 되었으며 유능한 학자들이 배치되었다. 당시 열강들은 아시아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³⁰

26 黒板勝美는「埃及に於ける発掘事業」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로제타스톤은 영국군이 프랑스군에 승리한 기념으로 영국의 왕이 가지고 온 것으로 지금은 런던의 영국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 이집트 유물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중략) 프랑스군은 영국군에게 패하였지만 19세기에 들어서도 이집트에 역시 프랑스의 세력이 많이 있었다. 특히 프랑스인 레셉스가 수에즈 운하를 개착한 이래, 프랑스인들의 세력이 한층 이집트에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고분, 고적의 발굴 보존 사업에도 프랑스인이 가장 많다. 카이로의 국립박물관의 창립자는 프랑스인 마리에트이고, 古物局長도 역시 프랑스인으로 이집트 연구의 권위자인 마스페로 씨이다. 그러나 영국이 인도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쪽으로 수에즈 운하의 실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이집트 전체를 보호국으로 한 뒤부터는 영국의 세력이 이러한 고적 발굴에서도 점차 강해져 프랑스를 능가하게 되었다. 지금 고물국장은 마스페로 씨이지만 부장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영국인들이다.” 한편 구로이타의 이집트 방문의 의의를 고고학자의 시점에서 논한 것은 近藤二郎, 「黒板勝美のエジプト訪問の記録-近代日本のエジプト研究の先行者」, 『別冊生きる』(安田火災海上保険株式会社, 2002.2) 등이 있다.

27 黒板勝美, 「七二 希臘の発掘事業と博物館」, 『西遊二年欧米文明記』(1911) 참조.

28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Editions, 1991 Revised Edition).

29 黒板勝美, 「南欧探古記」, 『歴史地理』16-1(1910.7) 및 18-2(1911.8); 「古跡を巡りて(上)-マカオからインドまで」, 『大阪毎日新聞』(1928.8.28-9.6) 연재; 「古跡を巡りて(中)-ベルシャの旅」, 『大阪毎日新聞』(1928.10.19-10.25) 연재; 「古跡を巡りて(下)-上古文明の揺籃の地イラク・シリヤを歩くの記」, 『大阪毎日新聞』(1928.10.26, 10.27) 연재 등을 참조.

30 Benedict Anderson, 앞의 책(1991), p. 306에 따르면 서방 아시아 각국의 연구소나 박물관 설립의 추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를 보면 1916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업 또한 이러한 역사로 규정할 수 있다.

1898년	베트남	프랑스, 極東學院 설립
1898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동인도), 인도차이나박물관, 사적과 설립
1899년	버마	영국, 고고학과 설립
1901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동인도), 식민지고고학위원회 설립
1907년	태국	프랑스, 앙코르 관리사무소 설립

한편 앤더슨은 당시 식민지 유적을 만들어 낸 자와 식민지의 원주민은 같은 인종이 아닌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예를 들어 버마(지금의 미얀마)의 경우, 오랜 세월 쇠퇴의 역사만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원주민들은 그들의 선조들만큼의 위업을 성취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식민지 통치자에 의해 잘 복원된 유적은 그 주변의 빈곤한 원주민들의 실상과 병치되어, 원주민 스스로가 오랜 세월을 걸쳐 위업을 달성할 능력도 자치의 능력도 상실해 버린 그들의 상황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³¹

³¹ Benedict Anderson, 앞의 책(1991), p. 295. 朝鮮古蹟調査事業이 조선인에 미친 충격에 대해서는 『朝鮮史』 편찬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였던 崔南善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운 日本人은 동시에 고마운 일본인임을 생각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한 가지, 그래, 꼭 한 가지 일본인을 향하여 고맙다고 할 일이 있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닌 古蹟調査事業이다. 모든 것이 다 마땅치 못한 가운데 꼭 한 가지 칭찬해줄 일이 古蹟의 探究와 遺物의 保存에 대하여 근대적 학술적 노력을 쌓아감이다. 우리 자신으로 말하면 무안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잔등이에 화톳불을 질러 놓을 일이지만은 조선 사람이 아니하는 조선 일을 일본인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 功烈이 더욱 더욱 빛나는 것이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 할지라도 학술에는 내남이 없다할지라도 일본인의 손에 비로소 조선인 생명의 흔적이 闡明된다함은 어떻게든 민족의 수치인 것은 더할 말 없는 바이다. 일본인의 발견·천명의 功塔이 일척만 聳起하면 조선인의 殘破毀棄의 辱牌가 일장씩이나 加高하는 것을 할 때에 몸에서 소름이 끼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시리아학(Assyriology)이 뉘 손에 건설되든지, 멕시코[墨西哥]의 고고고사가 뉘 힘으로 경영되든지, 이는 종족과 사회가 무수한 변천을 지낸 오늘날에 뉘게 더 영화가 되고 더 치욕이 될 것이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마는 저 이집트학(Egyptology)[埃及學]이 이집트[埃及] 이외의 인의 손에 건설되고, 인도의 고문화연구가 인도 이외의 국민의 힘으로 경영되어 가는 것이 이집트와 인도인의 어떠한 상태의 반영임을 생각하면 문화권 내에 있어서 이집트와 인도인의 깃발한 지위와 훌륭한 체면이 다른 아무것에 보담 여기 가장 잘 나타난다 할만하다. 그 문화의 계승자일 자가 도리어 破滅者가 되고 그 민족적 재산의 利殖者일 자가 도리어 蕩敗者가 되는 곳에 그네의 과거의 생명에 영광이 줄고 현재의 생명에 존엄이 없고 미래의 생명에 기대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果報이다. 죽어가는 남이 있기는 바라는 내가 있는 까닭이다. 일본인의 朝鮮古蹟考查事業은 아마 세계의 인류에게 영원한 감사를 받을 일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들도 다른 이름에 끼어서 남 만한 감사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제가 할 일을 남이 한 - 남도 하는 데 저는 모른 체한 - 내 집 세간을 살살이 들추어내는 남이 있는 줄을 임자라고 기척도 알지 못한 것이 어떻게 염치없고 면목 없는 일임을 생각하면 이 부끄럽고 언제까지든지 사라지지 아니할 것임을 생각하면 감사하리란 용기조차 나오지를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民族의 大覺醒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각성은 아직 一混沌이다. 명료한 자각은 마땅히 정제된 내용을 가질 것이다. 이름을 구하기 전에 실상을 만들 것이다. 이름도 찾겠지만 실상이라고 재할 것이다. 이름에 큰 정신을 차린 다음에는 다시 한 번 실상에 깊은 정신을 차릴 것이다. 정신부터 독립할 것이다. 사상으로 독립할 것이다. 학술에 독립할 것이다. 특별히 자기를 護持하는 정신, 자기를 발휘하는 사상, 자기를 究明하는 학술의 上으로 절대한 자주·완전한 독립을 실현할 것이다. 조선인의 손으로 朝鮮學을 세울 것이다. 조선의 피가 속에 돌고 조선의 김이 곁에 서리는 活發한 大朝鮮經典을 우리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發奮할 것이다. 나를 내가 알라 들 것이다. 내 생명의 샘을 내 손으로 칠 것이다. 내 영광의 북을 내 손으로 둘 것이다.

朝鮮에서 實地의 遺物遺蹟을 가지고 학술적 査究를 試하기는 光武6년에 東京帝國大學의 關野氏가 건축조사에 착수한 것이 비롯되었다. 그 결과가 그 이듬해에 『韓國建築調査報告』로 나왔다. 隆熙3년에 大韓政府에서 古建築物及古蹟調査를 착수하게 됨에 저번의 인연으로 關野氏가 그 소임을 맡게 되었다. 그 결과로 『韓紅葉(朝鮮藝術之研究)』, 『同續編』 등이 나왔다. 그 뒤에 일본사람에게로 계승되어 규모가 점차로 확대되고 사업도 크게 진척되었다. 이로부터 선사유적, 고분, 사적 등의 探查, 研究, 發掘, 修補 등 제방면으로 각 該方面 專門學者의 손에 상당히 불만한 성적이 생겼다. 丙辰 이래로 해마다 내는 조사보고서와 평안남도에는 漢治郡及高句麗의 유적에 관한 特別報告書, 시베리아[西比利亞]에 있는 古民族의 유적에 관한 특별보고서 등은 다 그 勤勞의 산물이다. 그 중에서도 『朝鮮古蹟圖譜』(既刊七冊)는 순수한 학술적 편찬으로 귀중한 내용을 가져서 學界에 不朽의 建樹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古蹟調査事業, 더욱 古墳考究는 아직 草創에 속하여 不備와 無序次가 심한 것이다. 學的檢覈을 지내어 학적 체계

이러한 사실은 구로이타 가쓰미와 데라우치 마사타케 등이 옛 문화재들을 현지에 보존하고자 주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식민지에서 발굴된 고대 유적과 유물들은 절대적으로 식민지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구로이타의 문화 전략은 식민지 조선의 현대미술 분야에도 응용되었다. 후지타 료사쿠에 따르면 구로이타는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이왕직 장관과의 담합’으로 덕수궁에 李王家美術館을 건립하여 明治 初年 이후의 일본 회화, 조각, 공예 근대미술품들을 남김없이 교체하여 전시하였고,³² 그 전시는 1933년부터 1943년까지 이어졌다. 그 목적은 ‘조선 在住者들의 미술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 근대 예술을 직접 접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도록 함’이었다.³³ 이러한 대담한 활동이 조선사 편찬이나 고적조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³⁴

앞서 고고학 유적들이 세속적 식민지 국가의 훈장으로 새롭게 지위를 얻었음을 언급하였는데, 기술적으로 뛰어난 고고학 보고서가 다수 작성되면서 그 훈장은 무한 복제되어 국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이러한 고고학은 복제기술이 성숙해지며 훌륭한 정치적 표상이 되었다.³⁵ 총독부가 『고적도보』나 『고적조사보고』의 편찬에 많은 정성을 들인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후지타 료사쿠에 따르면 데라우치 총독은 『조선고적도보』를 모두 비서관실에 보관해 두고 내외 빈들에게 직접 서명을 하여 보내주었다고 한다. 특히 각국 영사나 외국 유명 인사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는데,³⁶ 이러한 그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는 다시 설명

를 세우게 된다면 전도가 오히려 망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망연이란 빈 구석이 있음이 실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恥辱의 낙인을 가시게 할 수 있는 포소다. 우리의 奮發努力의 여하 - 하고 아니하고, 크고 작은 여하로써 얼마만큼이라도 과거를 추속하고 현재를 綱繆하고 장래를 개척할 수 있는 關節이다. 아직도 늦을 것 없으니까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자기의 진면목을 如實的으로 인식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 하나를 가지고라도 넉넉히 世界學界를 향하여 우리의 지적 기능·학적 품질을 호뜻하게 나타내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의 꼭하여야 할 일임이 물론이다. 남부러울 것 없는 훌륭한 古代史를 산야 도처에 가진 우리는 하루 바빠 그 글을 알아볼 눈을 떠야 하겠다. 그 말을 알아들을 귀가 열려야 하겠다. 그리하여 거기서 씹는 민족적 신비의 醇醪로써 목마른 생명을 흠뻑 축일 것이다.” 崔南善, 「朝鮮歷史通俗講話 4 古墳」, 『週間東明』1-6(1922). 그러나 이러한 최남선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대에 고고학자의 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에 의해 도굴 이외에 조선인의 조사가 허가된 적도 없다.

32 藤田亮策, 앞의 논문(1953), p. 337.

33 藤田亮策, 앞의 논문(1953), p. 337 및 李王職 編, 『李王家德寿宮日本美術品圖録』(李王職, 1933) 중 篠田治策의 서문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글이 있다.

34 李美那는 「李王家德寿宮日本美術品展示－植民地朝鮮における美術の役割」, 『東アジア/絵画の近代－油画的誕生とその展開』(静岡県立美術館, 1999)에서 ‘전시’가 실현된 과정과 함께 그것이 가진 정치성, 또한 당시 조선 측의 반응이나 구로이타의 역할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35 Benedict Anderson, 앞의 책(1991), p. 297.

36 藤田亮策, 「ピリケン総督－朝鮮の思い出(一)」, 『親和』52(1958.1), p. 2;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p. 333.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혼장을 알아줘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서양의 열강들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또한 19세기 말 이래 제국주의의 조류 속에 식민지 국가가 역사(고고학)와 권력을 연결하여 완성한 특유의 표상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배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구로이타였으며, 그는 이를 식민지 조선에서 실천한 것이다.

IV. 조선총독부박물관

1896년에 폐궁되었던 경복궁은³⁷ 1915년 9월 ‘시정 5주년 기념 물산공진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어 옛 궁궐은 박람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 때 勤政殿 동쪽에 미술관을 새로 지어 물산공진회 중에 조선의 회화, 조각, 불상, 불구, 서적, 공예 등 많은 미술품을 수집하여 진열했다.³⁸ 물산공진회를 위한 가설 건축물들이 많이 건립된 가운데 미술관만큼은 영구적인 건축물로 남겨져,³⁹ 같은 해 12월에는 그 때 전시된 수집품을 토대로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흰 벽의 서양식 2층 건물은 정면에 돌계단과 돌기둥을 배열하고 내부는 중앙 대형 홀을 중심으로 좌우 방 2개씩 전부 6개의 방으로 나뉘 주요 유물들을 전시하였다.⁴⁰ 또한 창경궁 내의 이왕직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경복궁 내의 전각들이 박물관 시설로 이용되었다.⁴¹ 박물관 사무실로는 神貞王后의 거처였던 慈慶殿이 사용되었고,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 뒤에 있었던 思政殿, 萬春殿, 千秋殿이나 殿廊은 창고로 이용되었으며, 근정전 회랑에는 근대의 무기나 고려 석관, 석조 불상 등이 전시되었다. 修政殿에는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가 중국에서 들여온 벽화와 유물들을 전시했으며, 경회루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야외 공간에는 조선 각지에서 반입된 석탑, 비석, 석등 등을 진열하였다. 이로써 경복궁은 ‘12만평 남짓한 대형 박물관’이 되었다.⁴²

이런 전시 시설을 보유한 총독부박물관은 조선총독부 내무부의 고적조사와 총독부 학무국 편

37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왕궁으로 1395년에 창건되어 도중에 개경으로 천도한 것을 포함해서 1421년부터 임진왜란으로 1592년에 소실될 때까지 왕궁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후 270년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경복궁은 고종 즉위 후 대원군의 집정으로 1865년부터 재건공사가 시작되어 1868년 7월에 준공되자 고종이 1896년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길 때까지 왕궁으로 사용되었다.

38 藤田亮策, 앞의 논문(1953), p. 334.

39 藤田亮策, 「ピリケン総督-朝鮮の思い出(一)」(1958, 1), p. 2에 따르면, 공진회의 미술관을 박물관으로 상설하는 것은 데라우치 총독의 명령으로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조선호텔 설계를 한 독일기사가 경복궁궁전보존계획과 함께 그 동쪽에 세울 큰 박물관 건축 설계도를 완성시켰으며, 미술관은 그 정면 현관으로 생각되었다고 한다.

40 박물관 본관 건물은 해방 후, 학술원, 예술원의 소관 시설로 이용되었으나 1997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총독부청사와 함께 철거되었다.

41 총독부박물관의 전시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朝鮮總督府博物館, 『博物館略案内』(朝鮮總督府, 1931), 小泉顯夫, 『朝鮮博物館見學旅日記』, 『ドルメン』(滿鮮特輯號, 1933, 4), 『朝鮮總督府博物館』, 『博物館研究』8-4(1925, 4), 有光教一, 『私の朝鮮考古學』, 姜在彦·李進熙編, 『朝鮮學事始末』(靑丘文化社, 1997) 등을 참조.

42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1953), p. 334.

집과의 자료조사 업무를 통합하여 수집한 유물들을 전시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목적과 함께, 조선 전 지역의 고적조사와 보존사업을 위한 데라우치 마사다케 총독의 ‘열정적인 원조’를 바탕으로 건립되었다.⁴³

총독부박물관 건립 목적은 총감부 시절부터 착수되어 온 국가사업인 고적조사사업을 통해 수집 및 정리된 확실한 자료를 전시하여 조선 문화의 변천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⁴⁴ 즉 총독부박물관의 설립은 고적조사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총독부박물관이 개관한 다음 해인 1916년 7월,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을 반포하고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고적에 대한 단속, 보존, 조사 강목을 제정하는 등, 조선총독부박물관 건립과 함께 고적조사 사업을 위한 법제상의 정비나 본격적인 조직화가 진행되었다. 총독부박물관의 특징은 독립된 기관이 아닌 최초 총독부 서무국에 소속된 이래,⁴⁵ 소속 부서는 자주 바뀌었지만 총독부 소속기관으로서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의 패전으로 폐관되기까지 박물관은 독립된 직제 없이 총독부 소속 사무관이 주임으로 박물관 사무를 총괄하였고, 2~3명의 기사와 5~6명의 고용인을 직원으로 두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그 업무는 광범위해서 연차계획에 따른 유적 조사, 寺刹이나 廟堂과 같은 대형 건축물·塔燈·비석·주춧돌·고분·城柵 등의 수리와 보수, 도록·보고서·博物館報 등의 인쇄, 유물 전시 및 구입과 보수 등과 더불어 발굴, 연구까지 맡고 있었다.⁴⁶

그런데 총독부박물관은 이미 언급했듯이 총독부가 자체적으로 조사 연구한 확실한 자료를 전시하여 조선의 옛 문화의 특색과 대륙 및 일본과의 관계를 학술적으로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고, 이 점이 미술공예관의 성격인 이왕가박물관과 다른 점이라고 인식되어 왔다.⁴⁷ 하지만 단순히 전시 내용이나 전시 방법의 차이만으로 이왕가박물관과 별도로 총독부박물관을 신설할 이유는 없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구로이타 가쓰미가 1912년경부터 계속 주장해 온 ‘국립박물관’에 대한 구상이다. 그는 박물관이 잡다하게 많은 전시품들을 모아 진열하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며, 이에

43 藤田亮策, 「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 『朝鮮』 199(1931.12), p. 91.

44 朝鮮總督府博物館, 『博物館略案内』(1931), p. 1.

45 박물관 및 고분조사 사무는 당초 총독부 서무국 총무과에 속했으나 후에 서무부 문서과로 옮겨져 중추원 서기관에서 겸임인 박물관 주임을 대표로 통일해서 박물관 촉탁 이하의 박물관원에 의해 일체의 사무를 집행했다. 이어서 1921년 10월에 사무분업규정이 개정되어 그 때까지 서무부 문서과에 속했던 박물관 및 고분조사 사업과 학무국 종교과 소관의 고사찰 및 고건축보존보조에 관한 사무는 학무국 고분조사과가 맡았다. 나아가 1924년 고분조사과가 폐지됨에 따라 박물관과 고적/고건축물, 명승천연기념물 조사보존사업은 학무국 종교과로 이관되었다. 藤田亮策, 「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1931.12), p. 91.

46 藤田亮策, 「朝鮮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1(1951.5).

47 다카기 히로시(高木博志), 「일본 미술사와 조선 미술사의 성립」,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휴머니스트, 2004)에 따르면 총독부박물관이 ‘문화사적 연구’에 의해 진열된 것에 비해 이왕가박물관은 고려, 조선의 ‘미술적, 감상적’으로 배열하는 방침을 1925년 11월 『湯淺政務總監二供閱書類(宗教課)』(小川敬古文書1208, 京都大学工学部 所藏)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족하지 않고 얼마만큼 의미 있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박물관이 사적 보존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지 않으면 효과는 상당수 상실될 것이며, 모든 유럽국에서는 이를 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이 이 모든 사무를 감독하고 있으며, 지방의 작은 박물관들마저도 사적 유물 보관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있을 정도’라고 역설하였다.⁴⁸

1918년에는 보다 명확한 주장으로 나타나 “고분 발굴이나 발굴품의 처리는 국립박물관이 관장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립박물관이 앞서서 고분 등의 조사에 임해야 한다.”라며 ‘사적 보존 역시 국립박물관의 임무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⁴⁹ 박물관과 고적조사사업, 보존 관리가 국립박물관이라는 하나의 기관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독부박물관 주임으로 오랜 세월 총괄 책임자였던 후지타 료사쿠는 조선에서 ‘본토보다 한발 앞서서 통일된 조사와 정확한 결과를 보고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였으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여 국가사업으로 조사, 보존, 진열의 세 가지 업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완전한 이상적인 연구를 이룰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총독부박물관은 일본에서는 불가능했던 구로이타가 지향한 국립박물관이 해야 할 역할을 먼저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⁵⁰ 구로이타는 ‘제실박물관은 어디까지나 제실의 보물을 전시하여 국민들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곳으로, 왕실에 대한 국민들의 사상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관’이라 규정하였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국가 역시 국립박물관을 건립하여 보존에 힘쓰고 오래된 사찰의 보물들을 전시할 시설이나 개인의 수집품들을 국가가 인수해서 전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⁵¹

따라서 구로이타가 제실박물관(Royal Museum)과는 별도로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듯이, 이왕가박물관과 다른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총독부박물관이 설립된 것이다. 실제로 후지타 료사쿠는 총독부박물관은 식민지에 건립되었지만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경험을 했으며, 정밀한 학술적 연구에 있어서도 일본의 조사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라고 인식하였다.⁵²

48 黒板勝美, 「博物館について」, 『東京朝日新聞』(1912); (原載), 『虚心文集』4(吉川弘文館, 1939), pp. 481-487. 이러한 구로이타의 제안대로 총독부박물관에는 경주 분관, 부여 분관이 동일 계통 아래 설치되었고 나아가 개성부립박물관, 평양부립박물관도 “총독부박물관과 충분한 연락을 취하면서 진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斎藤忠, 「朝鮮に於ける古蹟保存と調査事業とに就いて」, 『史蹟名勝天然記念物』15-8(1940.8), p. 45.

49 黒板勝美, 「国立博物館について」, 『新公論』33-5(1918.5); (原載), 『虚心文集』4(1939), p. 516.

50 藤田亮策, 「朝鮮考古学略史」(1933.4), p. 13. 후지타에 따르면 총독부박물관이 ‘적은 경비로 더군다나 열 명도 채 안 되는 인원으로 옛 사찰·국보 보존,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와 제실박물관과의 3대 사업에 버금가는 업무를 전반에 걸쳐서 요청받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글에서 총독부박물관이 구로이타의 ‘국립박물관’ 구상에 따른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51 黒板勝美, 「国立博物館について」(1918.5), p. 516. 1900년에 제국박물관은 皇室博物館으로 개칭되었다. ‘제국’을 ‘제실’로 고친 것은 제국의회, 제국대학, 제국도서관 등이 정부 소관이었기 때문으로, 제실 소속인 박물관과 그것들을 구별시켜서 그 소속을 명료히 하기 위해서였다. 더욱이 이때의 새 관제에 따라 工藝部가 폐지되고 天産部도 정리되어 역사, 미술, 미술공예의 3부가 중추가 되어 역사미술관으로서의 성격이 짙어지게 된다. 東京国立博物館 編, 『東京国立博物館百年史』(東京国立博物館, 1973), pp. 307-311 참조.

총독부박물관이 목표로 했던 학술성에 관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전시 방법이다. 후에 평양박물관장이 된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는 본관의 6개 전시실 중에서도 중요한 곳은 ‘삼국시대 고분출토품’과 ‘낙랑 대방군 시대 유물’을 전시한 두 개의 전시실이라고 지적하였다.⁵² 이 박물관의 전시실을 순서대로 관람하다 보면 한반도는 삼국시대 이전의 낙랑 대방군 시대에 ‘漢族이 한반도로 이주하여 한인들의 식민지가 형성’되었고, 후반기인 조선시대는 ‘유학의 영향과 잇따른 전란과 내부의 당쟁 등으로 인해 산업도 공예도 쇠퇴해져서 볼 만한 것들이 적어진다’는 인상을 받도록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이다.⁵⁴

이러한 고대와 조선왕조 후기에 대한 견해는 조선총독부가 추진하고 있던 역사편찬 사업과 고적조사 사업의 지향점이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1916년에 『朝鮮半島史』 편찬사업에 착수하였는데,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의 『朝鮮半島史編纂要旨』에 따르면, 한반도 역사편찬의 주안점은 첫째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동족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둘째 고대부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피폐해지고 빈약해졌다는 점이며, 일본과의 병합으로 인해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⁵⁵

고적조사 사업은 조선사 편찬이 중시한 역사의 기원 문제에 고고학적인 근거를 부여하는 것으로, 마치 자동차의 양쪽 바퀴와 같이 조선 지배의 정당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두 사업의 지침을 정한 것은 데라우치 총독이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구로이타 가쓰미였다.⁵⁶ 구로이타는 누구보다도 조선 역사의 기원에 대해 문제시 했고,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 낙랑군 설치에 있음을 반복해서 거론하였다.⁵⁷

또 동시에 구로이타는 근대 역사학과 고고학을 통해 조선인의 민족정신을 고무시키는 史書에 대항해 역사 편찬과 고적조사 사업으로 한일병합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한 데라우치 총독의 정책을 학술적인 면에서 뒷받침하였다.⁵⁸

경복궁에 건립된 총독부박물관은 일본의 조선 지배에 대한 이와 같은 국가적 사업의 성과를 전시하는 장이 되었다. 그곳은 조선왕조 건국 이래 신성한 공간이자 말기에 이르러 왕조의 마지막 불꽃을 지킨 권력의 상징 공간이었다. 경복궁에서 열린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에 의해 경복궁이 지닌 옛 왕궁으로서의 공간이 재구성되었고, 그곳에 담겨 있던 왕실의 권위는 사

52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略史』(1933.4), p. 14.

53 小泉顯夫, 앞의 논문(1933.4).

54 朝鮮總督府博物館, 『博物館略案内』(1931).

55 李成市, 『コロニアリズムと近代歴史學-植民地統治下の朝鮮史編修と古蹟調査を中心に』, 『植民地主義と歴史學』(刀水書房, 2004.3).

56 朝鮮總督府, 『朝鮮半島史編纂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纂ノ要旨及順序』(朝鮮總督府, 1916), p. 4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조선반도사의 주안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과 조선인이 동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것. 둘째 上古시대부터 조선에 이르는 군웅의 흥망기복과 역대 역성혁명에 의한 민중의 점진적 피폐와 實況을 서술하고 지금 시대에 이르러 성왕의 치세의 혜택에 의해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완성하게 된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할 것 … (후략)”

라져갔다. 더구나 총독부는 잔치 뒤에 남겨진 건물을 박물관으로 이용하여 역사적 유래가 명백한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관리자가 누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성스러운 옛 궁궐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총독부가 발굴한 낙랑군 이래의 고대 유적과 유물은 단군 건국 이래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일본 지배에 저항한 지식인들에게도 충격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이 당시 ‘조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최남선은 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을 “아마 세계 인류에게 영원한 감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며, 또한 우리도 여기에 참여해서 응분의 감사를 바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일본인의 손을 통해 처음으로 조선인 생명의 흔적이 천명된 것은 얼마나 큰 민족적 수치인지”라고 하였다.⁵⁹ 고적조사사업과 총독부박물관의 유물 전시가 미친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V. 맺음말 – 식민지주의와 총독부박물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일본이 처음으로 설립한 실질적 국립박물관이었다. 구로이타는 그후 일본 전역에 12개의 국립박물관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그때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각 지방에 설치되어야 할 국립박물관의 전형으로 소개하였다.⁶⁰ 구로이타는 분명 식민지 조선을 일본에 편입된 지방이라 인식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문명화에 따른 조선의 통합과 國民化는 구로이타의 역사 편찬이나 사적 유물 보존, 문화재 정책에도 발휘되었다. 예를 들어 덕수궁에 설립된 이왕가미술관의 경우, 석조전 서관에는 조선의 고미술을 전시하고, 이곳에서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쇼와(昭和)에 이르는 ‘현대 일본미술의 정화’를 관람할 수 있는 동관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복도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두 군데의 전시를 연속적으로 보고 나면 ‘한반도의 문화가 啓發,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린 구조였다. 이와 같은 일본 근대미술의 전시를 기획한 것이 구로이타 가쓰미였다.⁶¹

57 黒板勝美, 「大同江附近の史蹟」(1916.11).

58 藤田亮策, 「ピリケン総督一朝鮮の思い出(一)」(1958.1).

59 崔南善, 「朝鮮歴史通俗講話 4 古墳」(1922); 주 31 참조.

60 黒板勝美, 「国立博物館について」(1918.5). 한편 조선총독부박물관에게 기대되는 역할 또한 구로이타의 구상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藤田亮策의 「朝鮮考古學略史」(1933.4), p. 13의 다음의 기술이다. “일본의 고고학은 개인적 발굴과 도굴에 의해 발전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어디까지나 나라의 사업으로 발전하고 도굴과 개인적 발굴을 극도로 제한하여 고분의 파괴를 방지해 왔다. 이 점에 대해서 조선은 본토보다 한 발 앞서 있다. 통일적 조사와 정확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박물관과 고적조사사업과 보존 관리가 하나의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보존의 방책을 세우고, 발굴 조사에 의해 얻어진 확실한 자료를 진열하여 소개하는 등의 순서로 굉장히 이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우 적은 경비와 불과 열 명 남짓한 인원으로 古社寺國寶保存會, 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 제실박물관의 3대 사업에 비교할만한 일을 전 조선에 걸쳐 해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구로이타는 문화재가 국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박물관에 들어와 태고에 매우 뛰어났던 화가와 조각가들의 기술을 동경하고, 혹은 신사나 사찰에서 그 건축과 장식에 감화받아 더욱 신앙심을 키우게 된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는 것은 동시에 국민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함이다. 국민으로서 정신적으로 독립심을 발휘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미술품을 가지고 역사적 유물을 가지는 것은 국민적 자부심을 키우고, 이를 통해 외국인을 상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미술품을 외국에 팔아서 안 된다는 사실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⁶²

덕수궁의 이왕가미술관에서 조선의 고미술에서부터 일본의 현대미술을 관람한 조선인들이 ‘국민적 자부심’을 느꼈는지에 대하여 구로이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점에서 구로이타의 커다란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배의 대상인 이민족에게 지배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국민 교화의 장치(國史, 國立博物館)로 국민화를 이루고자 한 것은 이미 정신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구로이타가 구상한 국민의식 형성을 위한 역사학의 교화 대상은 일본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민족인 조선인까지 국민화하는 프로젝트로 확대되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이나 이왕가박물관의 전시 구조에서 단적으로 보아도, 구로이타의 국민교화를 위한 역사학은 정신의 문제라기보다는 특별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技術에 의해 만들어 낸 ‘정신적 독립심’이나 ‘국민적 자부심’은 이민족이었던 조선인에게 이중성을 띠 수밖에 없었다. 근대 조선에 등장한 원초적 민족주의와 제국 신민으로서의 국민의식이라는 이중성이다. 즉 조선 지배를 위해 동원한 그의 역사학은 커다란 모순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근대 일본의 국민 강화를 위한 역사학은 한 국가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족인 조선의 지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원래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고적조사사업이나 총독부박물관 사업은 구로이타의 역사학 구상의 모델로 삼았던 20세기 초 유럽의 역사학과 고고학이 식민지와의 관계 속에서 제도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⁶³ 구로이타는 이러한 모델들을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여 이민족의 지배와 교화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구로이타는 식민지 조선에 근대 일본의 현실적인 과제였던 국민교화의 역사학, 고고학을 끌어들이어 이민족 지배와 교화를 위하여 활용했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일본에서는 이를 수 없었던 자신의 학문적 신념을 식민지 조선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그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적조사사업과 조선총독부박물관이다.

61 이성시, 「조선왕조의 상징 공간과 박물관」(2004).

62 黑板勝美, 「史蹟遺物保存に関する研究の概説, 『史蹟天然記念物』1-3, 1-6(1915).

63 李成市, 「コロニアリズムと近代歴史学」(2004, 3).

이 두 정책 가운데 遺物保存法과 같이 일본에서는 쉽게 논의할 수 없었던 학문적 신념들을 제도화 절차가 필요 없는 조선에서 시행된 뒤 일본에서 실현된 경우가 있다. 한편 국립박물관과 같이 일본에서 실현되지 않고, 해방 후 한국에서 실현된 부분도 있었다. 식민지 조선의 고적조사와 박물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로이타가 견문한 유럽 열강국가들과 같이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지배에 따른 국민교화를 위한 역사학과 고고학이 식민지 종주국과 피식민지 모두에 의해 한층 더 세련되고 침예화되어 갔다는 것이다.

주제어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박물관, 세키노 다다시(関野貞), 고적조사 사업,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The archaeological research in colonial Korea and the Museum of the Government-general

Lee Sungsi*

Modern Japan conducted a full-extent study of ancient customs in Korea, in order to complete the submission of the Korean people and to rule them more efficiently. This research was followed by an archeological program which aim was to study the ancient sites of Korea; this program occupied a central position inside the legitimation process of Japanese domination, along the compilation of an annalistic *History of Korea(Chōsen-shi)*. The archaeological program did in fact begin before the Annexation, but it grew larger with the foundation of the Museum of the Government-general, which was to be in charge of this research. Even if this museum was not a large one, it embraced projects and pursued goals situated on a common ground inside the international stream of its time.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about the content of this archeological research and about the Museum, in charge of it. We will focus on cultural policies in Korea as seen by Kuroita, who elaborated the core of this research and who was well informed about the international tendencies of his time. Eventually we will try to analyze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Museum.

This examination we propose will enable us to close up on Kuroita's vision of modern historical science as a science designed to serve the construction process of national consciousness in modern Japan. As we shall see through an analysis of the archaeological program and of the Museum's policies as they were planed by Kuroita, the aim of this "edification" policy was not restricted to the sole Japanese but was in fact to be extended to the Korean themselves, in order to build them into a Nation. The historical science as seen by Kuroita, as it appears in the process, should not only serve the "edification" of the Nation or foster its spirit, but it should also serve the technical purpose that was the spiritual domination of the colonized people of Korea.

Thus, the "spiritual independance" or "national pride" expected from Japanese had

* Professor, Waseda University

fundamentally a dualistic meaning for the Koreans. Here the problem lies in the tension between the early Korean nationalism as it germ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the national consciousness as Japanese Empire's subjects as elaborated during the colonial ear. The historical science, as it was mobilized inside colonial policies in order to dominate Korea, could not help but be in the locus of a huge contradiction.

The historical science as a mean to build the Nation in modern Japan was not completed in the sole Japan but was also deeply rooted in the process of domination in Korea. It is because, from the beginning, the models which served as grounds for Kuroita's vision of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and of the Museum were the European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sciences as they fonctionne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s colonial institutions in European colonies. Kuroita brought these models to colonial Korea and used them for the "edification" of the Korean people.

As the logic of preservation of ancient objects shows, Kuroita's policies also comprehended scholar goals that were hard to achieve in metropolitan Japan, but that were tried in colonial Korea where formal procedures were a lot easier. Some of these experiments tried in Korea were to be brought and realised later in Japan. On the other hand, some institutions such as the project of a National Museum were elaborated in colonial Korea, and this museum were to be established in Sou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although there were still no museum of that kind in Japan. Eventually, we assume a study of the archaeological research conducted in colonial Korea and of the Museum of the Government-general, will enable us to grasp how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sciences were used for the "edification" of one's Nation and of a colonized people, following the model Kuroita saw in the case of European powers, and also to understand how these modern sciences could reinforce themselves through the colonial experience.

Keywords :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e Museum of the Government-general, Sekino Tadashi, archaeological research, Kuroita Katsumi, Fujita Ryosaku

朝鮮総督府の古蹟調査と総督府博物館

李 成 市

I. はじめに

近代日本は、異民族である朝鮮人を支配、統治するために、朝鮮総督府を通じて植民地朝鮮における旧慣調査を徹底的に行った。その調査の一環に、朝鮮古蹟調査事業があり、それは『朝鮮史』編纂と共に、日本人による支配の正当化にとって重要な位置を占めていた。古蹟調査は、日本による韓国併合前より開始されていたが、併合後には、朝鮮総督府博物館の設立によって、博物館が古蹟調査をになうことになった。その規模は決して大きくはなかったが、そこに込められた意図は、設立当時の国際的な潮流を確実に把握した上での目指すべき大きな課題を明確に念頭においていた。

本稿では、朝鮮支配のための古蹟調査事業の内容と、それを¹担った朝鮮総督府博物館について論述し、それらの事業の中心的な構想者であり、当時の国際的な動向に敏感にかぎ取っていた黒板勝美に注目することによって、古蹟調査事業や朝鮮総督府博物館の歴史的な性格についての私見を述べることにしたい。

II. 朝鮮総督府と朝鮮古蹟調査

総督府が植民地統治に関わって重視していた文化事業に古蹟調査がある。この事業は、植民地解放後においても日本人の自負と自賛の対象となっていた。藤田亮策は、朝鮮総督府の古蹟調査保存事業は、「朝鮮半島に遺した日本人の最も誇るべき記念碑の一つであると断言し

¹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古文化の保存と研究：黒板博士の業績を中心として』（黒板博士記念會，1953）327頁。梅原末治「日韓併合の期間に行なわれた半島の古蹟調査と保存事業にたずさわった一考古学の回想録」（『朝鮮学報』51、1969年5月）は、藤田亮策と同じ立場から、解放後の朝鮮人による批判が全くの的はずれであると再批判している。

て憚らない¹と記している。

こうした総督府の古蹟調査と保存事業は、すでに統監府時代(1909年)において開始しており、度支部(荒井賢太郎長官)が関野貞を招聘して、朝鮮半島全土の古建築調査を委嘱したことに始まる。翌年10月に総督府が開設されると関野の古建築・古蹟の調査は、内部地方局第一課の所管としていっそう強化され、その後、1913年に基礎調査は完了した。²

これとは別に、1911年から総督府内部学務局の事業として、鳥居龍蔵に人類学・先史学の調査研究が委嘱された。関野の研究に欠けている人種的・民族的調査および石器時代の調査を補う意味があったという。³

藤田亮策によれば、以上の関野、鳥居による調査は、寺内正毅の計画、発案であったとされている。⁴ とりわけ寺内について注目されるのは、関野の調査に基づいて、大冊で重厚な装丁からなる図録『朝鮮古蹟図譜』の刊行を計画したことであって、1916年には4冊が刊行された。このことの意味については次章で述べることにする。

次いで総督府は、上で述べた関野の古蹟調査事業と鳥居の史料調査事業を併せ、1916年4月をもって、総務局内に移管し、総督府博物館に統合管掌させた。総督府博物館は、次章で述べるように、1915年に景福宮内に美術館として建てられた屋舎を引き継ぎ、同年末に開館したものであった。⁵ また、1916年7月には、「古蹟及び遺物保存規則」を發布し、古蹟調査委員会を組織することになる。

この「古蹟及び遺物保存規則」で注目すべきは、これが日本における最初の史蹟保存法であり、内地に先立って植民地朝鮮で施行されたものであった点である。日本(内地)では1919年に「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が公布され、同保存委員会が内務省に制定されるが、朝鮮で施行された「古蹟及び遺物保存規則」と古蹟調査委員会の制定は、内地日本に3年早く先駆けて実施されたものなのである。⁶ そして、「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がかねてより東京帝国大学教授の黒板勝美が主唱していた内容に大部分従っていることからすれば⁷、黒板の保存法に関

2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前掲書) 330頁。

3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前掲書) 333頁。

4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前掲書) 334頁。これらの調査が軍人でもあった寺内正毅の発案であったことに関連して興味深いのは、1911年に日本で翻訳刊行されたクローマー卿「最近埃及」(MODERN EGYPT, 1908)を大隈重信が序文において、クローマーの演説集を英国大使館から寄贈されるや、韓国における「保護政治」の上で参考にすべきと、当時の統監・伊藤博文に送付したエピソードに言及していることである。大隈の序文によれば、クローマー卿は、軍人より身を起こしてインド、エジプトで財政を管掌し、1883年~1907年に至る24年間、エジプトの実権を握り、行政、財政、教育の多方面にわたる功績によって男爵、子爵、伯爵と昇進し、「最近埃及の創立者」たる栄光を担って上院議員として国家のために尽くしていると紹介している。

5 朝鮮総督府博物館「博物館略案内」(朝鮮総督府、1936年3月)、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前掲書) 334頁。

6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前掲書) 342頁。

7 黒板勝美「史蹟遺物保存に関する研究の概説」(『史蹟名勝天然記念物』1-3、1-6、1915年1月、6月)。

する提言が、まず植民地朝鮮で実施されたことになる。

しかも、これによって、朝鮮における古蹟の調査は、総督府自らが行き、保存管理の行政事務もすべて、博物館(総督府総務局所属)に行わせる点で、日本で「最初の統一的文化行政」となった。⁸ 自ら調査研究した確実な資料を陳列し、同時に、古蹟の保存工事の実施から、法令による指定・禁止などの事務に至るまで、統一的に博物館(総督府)が管理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に、1916年は古蹟調査事業にとって重要な転換期であったのだが、ここにおいて黒板勝美の果たした役割は無視できない。まず、保存法は、すでに述べたように黒板が1912年以来、提唱していたもの⁹であり、しかも黒板の最も強調した点は台帳法の採用であった。すなわち、黒板はドイツの実例を引きながら、台帳法の採用は多くの手数と労力を要するものであるが、保存事業の第一歩であり、不可欠であることを強調していたのである。¹⁰ まさに「古蹟及び遺物保存規則」には、黒板の主張が、そのまま取り入れられている。それだけでなく、8条中の4条は、台帳に基づく規則となっており、「規則」そのものが台帳法を骨子としていることは歴然としている。¹¹

さらに、総督府博物館が文化財の保存管理をも担当するようになった点についても、黒板

⁹ 黒板勝美「遺跡保存に関する意見書」(『史学雑誌』23-5、1912年5月)、同「史蹟遺物保存に関する研究の概説(前掲書)。

¹⁰ 同上。

¹¹ 朝鮮総督府『大正五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書』(朝鮮総督府、1917年12月、3-5頁)によれば次のとおりである。

古蹟及遺物保存規則(大正五年七月四日朝鮮総督府令第五十二号)

第一条 本令ニ於テ古蹟と称スルハ貝塚、石器骨角器類ヲ包有スル土地及堅穴等ノ先史遺蹟古墳並都城、宮殿、城柵、関門、交通路、駅、烽火台、祠宇、壇廟、寺刹、陶窯等ノ遺址及戦跡其ノ他史実ニ関係アル遺蹟ヲ謂ヒ遺物ト称スルハ年代ヲ經タル塔、碑、鍾、金石仏、幢竿、石燈等ニシテ歴史、工芸其ノ他考古ノ資料ト為ルヘキモノヲ謂フ。

第二条 朝鮮総督府ニ別記様式ノ古蹟及遺物台帳ヲ備ヘ前条ノ古蹟及遺物中保存ノ価値アルモノニ付在ノ事項ヲ調査シ之ヲ登録ス。(下略)

第三条 古蹟又ハ遺物ヲ発見シタル者ハ其ノ現状ニ変更ヲ加フルコトナク三日以内ニ口頭又ハ書面ヲ以テ其ノ地ノ警察署(警察署ノ事務ヲ取扱フ憲兵分隊又ハ分遣所ノ長ヲ含ム以下同シ)長ニ届出ツヘシ。

第四条 古蹟又ハ遺物ニ付朝鮮総督府ニ於テ之ヲ古蹟及遺物台帳ニ登録シタルトキハ直ニ其ノ旨ヲ当該物件ノ所有者又ハ管理者ニ通知シ其ノ台帳ノ謄本ヲ当該警察署長ニ送附スヘシ。前条ノ届出アリタル古蹟又ハ遺物ニ付古蹟及遺物台帳ニ登録セサルモノハ速ニ当該警察署長ヲ經テ其ノ旨ヲ届出人ニ通知スヘシ。古蹟及遺物台帳ニ登録シタルモノニシテ其ノ登録ヲ取消シタルトキハ前項ニ準シ其ノ物件ノ所有者又ハ管理者に通知スヘシ。

第五条 古蹟及遺物台帳ニ登録シタル物件ノ現状ヲ變更シ、之ヲ移轉シ、修繕シ若ハ処分セムストキ又ハ其ノ保存ニ影響ヲ及ホスヘキ施設ヲ為サムストキハ当該物件ノ所有者又ハ管理者ハ左ノ事項ヲ具シ警察署長ヲ經テ予メ朝鮮総督ノ許可ヲ受クヘシ。(下略)

第六条 古蹟又ハ遺物ニ付台帳ノ登録事項ニ變更ヲ生シタルトキハ警察署長ハ速ニ之ヲ朝鮮総督ニ報告スヘシ。

第七条 警察署長遺失物法第十三条第二項ニ該当スル埋藏物発見ノ届出ヲ受ケタルトキハ同法ニ依ル届出事項ノ外同法第十三条第二項ニ該当スルコトヲ証スルニ足ルヘキ事項ヲ具シ警務総長ヲ經テ朝鮮総督ニ報告スヘシ。

第八条 第三条又ハ第五条ノ規定ニ違反シタル者ハ二百円以下ノ罰金又ハ科料ニ処ス

がかねてより強く主張していたものであり¹²、その後も日本国内に向けて、その施行を促す発言を行っている。¹³ いずれにしても、1916年における古蹟調査事業の転機となった法制上の整備や事業の組織化が、古蹟調査委員として参画した黒板の計画・立案に基づくもの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

その後、古蹟調査事業は、1931年の財政緊縮政策によって諸事業が停滞するなどの難局をむかえる。黒板はこの事態に際して、博物館の外郭団体(朝鮮古蹟研究会)を作り、外部から調査資金を集め、学術調査の継続と、総督府の保存事業を支えた。そして1931年から1945までの古蹟調査は、実質上、朝鮮古蹟研究会の事業であったといわれている。¹⁴

これらの施策は、全く黒板の個人的な努力によるものであり、黒板は自ら宇垣一成総督、今井田清徳総監に具申して、これを実現させたのである。後世、高い評価のある朝鮮古蹟調査報告10冊、朝鮮古蹟図譜5冊、朝鮮宝物古蹟図譜2冊の刊行もまた、朝鮮古蹟研究会の援助によるものであった。¹⁵

朝鮮古蹟研究会は、1931年に平壤と慶州に研究所を置き、楽浪文化と新羅の古文化研究を行なわせたが、この研究所の研究員人事に至るまで黒板が関与していたのである。¹⁶

黒板は、朝鮮史編纂事業の計画立案とその推進を積極的に行っていたことで知られているが、それと同時に、古蹟調査事業にも全く同様の役割を果たしていたのである。

それでは黒板が古蹟調査に向けた情熱は、どこに由来しているものなのだろうか。その事業は何を目的としたものなのだろうか。こうした疑問に対する手がかりは、黒板自身の発言と行動から伺い知ることができる。

たとえば、黒板は古蹟調査委員として1916年に黄海道・平安道の調査(『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を行っているが¹⁷、その成果を一般向けに述べた「大同江附近の史蹟」(1916年)の中で

(様式)

登録番号

名称

種類及形状大小

所在地

所有者又は管理者ノ住所氏名若ハ名称

現況

由来伝説等

管理保存ノ方法

¹² 黒板勝美「遺跡保存に関する意見書」(前掲誌)第8章「保存法令と監督局及び博物館」参照。

¹³ 黒板勝美「国立博物館について」(『新公論』33-5、1918年5月)。

¹⁴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前掲書)344頁。

¹⁵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前掲書)349頁。

¹⁶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前掲書)349～352頁。有光教一の回想録によれば、有光は京都で黒板に会って後に、慶州に赴任したという。

¹⁷ 朝鮮総督府「大正五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書」(前掲書)。

「朝鮮の歴史の出発点」がどこであるかを、自らが行った調査に関連づけて問題にしている。¹⁸ そこにおいて結論的に、それは中国文明をいち早く受容した平壤であり、また、この地に中国文明が及ぶことによって民族の移転、動揺がもたされたと、日本民族の起源にも波及することが示唆されている。さらに歴史の起源に関わって、檀君について述べながら、それが「最新の信仰」であると簡略に否定している点は、黒板が日本で行った1921年の講演(『朝鮮の歴史的觀察』)に近似した内容となっている。¹⁹

この論文で特に重要な点は、関野貞の古蹟調査(『朝鮮古蹟図譜』)を引用しつつ、考古学的にも楽浪遺蹟のある平壤が最初の中国文明受容の地であり、それが朝鮮の歴史の出発点であることを強調しているところである。というのも、黒板は、1923年の第1回朝鮮史編纂委員会で、「歴史はいつに始まりいつに終わるかということを書くのが最も必要である」ことを力説し、朝鮮側委員の檀君朝鮮、箕子朝鮮の位置づけに関する質問を稲葉とともに封圧しているのだが²⁰、黒板にとって古蹟調査は、単なる遺蹟の調査保存にとどまらず、『朝鮮史』編修を補完する重要な事業であったことが、ここからうかがえるからである。²¹

しかもこの点は、『朝鮮史』編修の中心を担った稲葉が、「朝鮮史研究の過程」の中で、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ことから裏づけられる。すなわち、近年、考古学上の探求が行われ平壤の楽浪および高句麗の遺蹟であるとか、慶州の新羅遺蹟などの調査が継続して行われ、その結果は朝鮮史の体系を培養するのにいっそう優れている、という発言である。²² 古蹟調査が重視した平壤、慶州の調査は、朝鮮史編修が重視した「歴史の起源」問題に考古学上の根拠を与えるものでもあったのである。

¹⁸ 黒板勝美「大同江附近の史蹟」(『朝鮮彙報』1916年11月)。

¹⁹ 黒板勝美「朝鮮の歴史的觀察」(前掲誌)。

²⁰ 朝鮮総督府朝鮮史編修会「朝鮮史編修会事業概要」(前掲書) 15頁。また、黒板は、「大同江附近の史蹟」(前掲誌)でも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先づ最初に上げたいのは朝鮮の歴史の出発点は何処であるかと云ふことである。昨年私は此席で申し上げたと思うが、凡そ各国の歴史を研究する場合には、第一に其国の歴史の出発点を考へなければならぬ。(中略)又檀君に関する伝説も九月山あたりにあつて、之も極く新しい伝説であり、新しい国民の信仰であるけれども、之も平壤附近にもつて行つたと云ふことは矢張朝鮮の人の考へに、平壤附近は古く開けた地方であると云ふ考へがあつたためだと思ふのである。(中略)先年来関野博士が古蹟調査をされて、平壤附近に於いては所謂楽浪郡時代の古墳が沢山あることを発見され、後漢時代の鏡其他の遺物を発見されたのは諸君も御承知のことであるが、総督府から御発行になつた『古蹟図譜』にも其結果が収められて居るのであるから、随つて平壤附近の平原が最も早く支那の文明を受けて居つたことは、疑ひない事実であらうと考へて居たつたのである。そこで自分の今度の旅行に於いて傍ら研究したいと云ふ心を起こしたは、第一に支那の文明を受けた大同江の平原に於いて、今日遺つて居る支那の文明を、どれだけ広く受け入れたかと云ふことを研究して見たいと思ふたのである」

²¹ 『朝鮮史』編集に関しては、『季刊 日本思想史』(特集—植民地朝鮮における歴史編纂、76、2010年) 参照。

²² 稲葉岩吉「朝鮮史研究の過程」(前掲書、196頁)には次のようにある。「わが国の朝鮮研究は順序よく発展してゐないとはいへない、而も戦近考古学上の探求が行はれ、或は平壤に於ける楽浪及び高句麗の遺蹟に、或は慶州の新羅遺蹟等に継続的に作業が行はれて、その結果は朝鮮史の体系を培養すること一段である」

Ⅲ. 古蹟保存政策と歴史的背景

上述のように、黒板勝美は誰よりも朝鮮総督府が実施した古蹟調査の事業に力を注いだ。この事業は、総督府にとって朝鮮支配の正当化に不可欠であると認識されていたからであり、黒板はこの目的に沿って、古蹟調査事業を推進した。また、軽視できないのは、黒板の朝鮮における史蹟の調査保存に関する施策は、常に日本(内地)に先立って大胆に展開されたという事実である。黒板は、日本国内において、いち早く文化財の保存管理について様々な提言を行っていたが、それらは、まず植民地朝鮮で実施された後に、日本でも実行され、さらに戦後日本の文化財保護法にも生かされた。こうしたこともあって、従来、総督府の古蹟調査事業は、日本人研究者によって賞賛の対象とすらなり、前章で引用した藤田亮策のように善政の象徴のように語られてきた。

また、黒板の「その地のものはその土地へ」という現地主義や、朝鮮の文化財を朝鮮国内に保存、展示したことなどをもって、植民地統治後においても、朝鮮と朝鮮人に対して永久に誇りうる文化政策であったとさえ言わしめているのである。²³

しかしながら、そのような見解は、黒板の古蹟保存政策の背景となっている思想に対する知見を欠いた一面的な評価というべきである。黒板の文化財保存に関する数多くの提言を見ると、それらは、必ずヨーロッパ諸国の政策がその前提にある。実際に黒板は、1908年から1910年にわたる2年間の旅行において欧米諸国をくまなく国情を視察しながら、各国の大学研究室、図書館、博物館、文書館を調査し、併せてイタリア、ギリシア、エジプト各地の古代遺跡を踏査研究した。²⁴ 黒板の提言は、ほぼこの時の体験が下地にあることは、『西遊二年欧米文明記』『埃及に於ける発掘事業』を見れば明らかである。²⁵

それを通して黒板が、イタリア、ギリシア、エジプト各地における大規模な発掘・調査・保存の実状をよく観察し、文化財の保存と美術館、博物館の組織をいかに精査していたかがわかる。黒板は、それらの現状を記す目的を、日本の学者たちに発掘事業や保存事業に対する注意を喚起し、その参考に供したいがためであると自ら述べている。また、実際にそれらは黒板の推進した事業で実現されたものが少なくない。

²³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前掲書) 340、357頁。

²⁴ この時の黒板勝美の欧米渡航は田中光顕伯爵のはからいによって直前になり宮内省囑託の辞令を得ることになり、そのために各国休廷博物館、図書館などへ自由に出入できたという。その経緯については、黒板勝美「学芸の守護者」(富田浩二郎編、『田中青山伯』青山書院、1917年)が自ら記している。この事実については朴煥斌氏のご教示をえた。

²⁵ 黒板勝美「西遊二年欧米文明記」(文会堂、1911年9月)、同「埃及に於ける発掘事業」(『考古学雑誌』1-6、2-5、1911年2月、1912年1月)。なお、注4で指摘したように、当時の日本の為政者にとってイギリスのエジプト支配は、いわば帝国主義のモデルでもあったことに留意する必要がある。

ここで注目したいのは、黒板のそれらに向けられた眼差しである。たとえば、エジプトの発掘保存事業を論じる際には、エジプトにおけるフランスからイギリスへの支配関係交代が発掘調査にどのような変化をもたらしたかを冷静に観察している。²⁶ またギリシアにおいても、イギリス、ドイツ、フランス、アメリカなどの列強が争って発掘事業に従事していることに強い関心を示している。²⁷

要するに、黒板はこの2年間の旅行で19世紀以来の植民地考古学を徹底して学んでいたのである。B・アンダーソンの言葉をかりれば、当時の植民地国家は、「きわめて直截なマキャベリ的・法的理由から、過去に、征服と同じくらい愛着をもつ」ようになっており、遺蹟は、「博物館化され、これによって世俗的植民地国家の勲章として新しい位置をあたえられ」ていたのである。²⁸ 黒板は、欧州旅行をはじめとして、その後も東南アジア各地の調査を行っているが、それらの旅行を通じて、植民地列強が自国において、あるいはエジプトやギリシア、東南アジアで、いったい何をどのように行っていたかを、目の当たりにしたのである。²⁹

そもそも、列強諸国にとって19世紀の初めには文明の遺蹟は何ら関心の対象ではなかった。しかし19世紀の半ばを過ぎると、彼らによって古代の遺蹟が次々に発掘され、測量され、写真に撮られ、分析され、それらは展示されたのである。この過程で植民地国家の考古学部門は強力で、権威のある機構となり、そこには有能な学者が配置されていった。例え

²⁶ 黒板勝美「埃及に於ける発掘事業」(前掲誌)。当該部分は次のように語られている。「ロセツタ・ストーンは、幾ばくもなく英軍が仏軍を破つた戦勝の記念として英国王の手に帰すこととなり、今日では倫敦のブリチッシュ・ミュージアムに陳列せられ、埃及品中にあつて異彩を放つて居る、(中略) 仏軍は英軍に破られたけれど、十九世紀に入つても、埃及にやハリ仏国の勢力が多く加はつた、殊に仏人レセツプがスエズ運河を開鑿して以来は、一層仏人の勢力埃及に及んだのである、従つて古墳古蹟の発掘保存事業にも、仏人が一番多いのである、カイロにある国立博物館の創立者は仏人マリエツトで、この人は後パーシアの称号を得た、今日でも古物局長は矢張り仏人で、埃及研究のアウソリチーたるマスベロ氏である。然るに英国が印度を保全する必要から、一方に於てスエズ運河の実権を収むると共に、遂に埃及全体をもその保護国としてからは、英国の勢力が此の古蹟発掘に於ても發展し、仏国を凌駕する有様になつて居る、それで現在の古物局長はマスベロ氏なるも、部長は皆英人と云ふも差支えない、特に上部埃及にワイゴール氏、下部埃及はクキベル氏と斯学を錚々たる英人が部長となつて居るのである、そしてこの上下埃及の二部が古蹟中最も主要なる場所を占むるのである」なお黒板のエジプト訪問の意義を考古学者の視点から論じたものに近藤二郎「黒板勝美のエジプト訪問の記録 — 近代日本のエジプト研究の先行者」(別冊 生きる) 2002年2月、安田火災海上保険株式会社)がある。

²⁷ 黒板勝美「西遊二年欧米文明記」(前掲書)「七二 希臘の発掘事業と博物館」参照。

²⁸ ベネディクト・アンダーソン、白石さや・白石隆訳「増補 想像の共同体」(NTT出版、1997年) 296頁。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Editions, 1991 Revised Edition).

²⁹ 黒板勝美「南欧探古記」(『歴史地理』16-1、18-2、1910年7月、1911年8月)、「古跡を巡りて(上) — マカオからインドまで」(『大阪毎日新聞』1928年8月28日~9月6日連載)、「古跡を巡りて(中) — ペルシャの旅」(『大阪毎日新聞』1928年10月19日~25日連載)、「古跡を巡りて(下) — 上古文明の揺籃の地イラク・シリアを歩くの記」(1928年10月26日、27日連載)等を参照。

ば、当時の列強がアジアにおいて、ほぼ同じ時期に同様の動きをとっている。³⁰

ところで、アンダーソンによれば、当時、植民地主国家にとって、遺蹟の建設者と植民地の原住民とは、同じ人種ではなかったと考えられていたという。例えば、ビルマにおいては、長期の衰退の歴史が想定され、原住民は現在では彼らの先祖が成し遂げたような偉業を成就する能力はないとされた。遺蹟が植民地統治者の手で復元され、その周辺の貧困と併置されることによって、原住民に対して、長期にわたり偉業を成す能力も自治の能力も欠いてしまったことを告知する役割を果たしたというのである。³¹

そのような理解があれば、黒板勝美や寺内正毅たちが古文化財を現地に保存することに固執した理由がどこにあったかが判明するであろう。植民地で発掘された古代の遺蹟や遺物は、絶対に植民地に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³⁰ Benedict Anderson(前掲書、306頁)は、西欧諸国のアジア諸国における研究所や博物館設立の推移下記のようにまとめている。これをみれば、1916年の朝鮮における総督府の古蹟調査事業もまた、こうした歴史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1898年	ベトナム	フランス、極東学院設立
1898年	インドネシア	オランダ(東インド)、インドシナ博物館・史跡課設立
1899年	ビルマ	イギリス、考古学課設立
1901年	インドネシア	オランダ(東インド)、植民地考古学委員会設立
1907年	シャム	フランス、アンコール管理事務所設立

³¹ Benedict Anderson(前掲書) 295頁。朝鮮古蹟調査事業が、朝鮮人に与えた衝撃については、『朝鮮史』編纂に対して徹底的に抵抗した崔南善の次のような語りが余すところなく伝えている。「しかし、憎い日本人は同時にありがたい日本人であると思わざるをえない。ただ一つ、そう確かに一つだけ日本人に向かって、ありがたいと言うことがある。それは他ならない古蹟調査事業だ。全てのことがみな気に入らない中で、ただ一つだけ賞賛してあげたいのが、古蹟の探求と遺物の保存について、近代的・学術的な努力を積み重ねていったことだ。我々自身としては、決まり悪いことであり、恥ずかしいことで、顔から火が出るようなことだが、朝鮮人がしない朝鮮のことを日本人がするところに、その功効がさらに輝くのである。文化には国境がないと言うけれども、一学術には彼我がないと言うけれども、日本人の手ではじめて朝鮮人生命の痕跡が闡明されたことは、どれだけ大きな民族的羞恥であるかはこれ以上、言うまでもない。日本人の発見・闡明の功塔が一尺高くなるごとに、朝鮮人の破れ傷ついた恥辱が一丈ずつ加わることを考えると、体から鳥肌がたつのを禁じえない。

アッシリア学が誰の手で建設されようと、黒西哥の古蹟考査が誰の力で経営されようと、これは種族と社会が無数の変遷を経た今日において、誰に多く栄華となり、誰に多く恥辱となるといったものではないと言えようが、あのエジプト学がエジプト以外の人の手で建設され、インドの古文化研究がインド以外の国民の力で経営されていくことが、エジプトとインド人のどのような状態の反映であるかを考えれば、文化圏内において、エジプトとインド人の踏みにじられた地位と泥に塗られた体面が他のどこより、ここに最もよく現れているとも言えよう。その文化の継承者である者がむしろ破滅者となり、その民族的財産の利殖者である者が、むしろ蕩夷者となっているところに、彼らの過去の生命に栄光が減じ、現在の生命に尊厳がなく、将来の生命に期待がありえないことは当然の報だ。受け取っていく他人がいるのは、捨てる私がいるからだ。

日本人の朝鮮古蹟考査事業は、恐らく世界の人類によって永遠の感謝をえる出来事かも知れず、また我々もそこに加わり、そのくらいの感謝を捧げるのが当然なのかもしれないが、自分がする仕事を他人がする—他人もしているのに自分は知らないふりを—自分の家の所帯道具をくまなく探し出す他人がいるのに、自分が持ち主だと、声も出せないことが、どんなに恥知らずで、面目ないことであるかを考えれば、—この恥ずかしさがいつまでも消えないであろうことを考えれば、感謝しようという勇気さえ出ないだろう。

こうした黑板の文化戦略は、現代美術の分野においても植民地朝鮮で応用されていた。藤田亮策によれば、黑板は、「篠田(治策)李王職長官との談合」によって、徳寿宮に建立された李王家美術館に、明治初年以来の日本の絵画・彫刻・工芸の近代芸術作品を余すところなく、入れかえひきかえ陳列し、この展示は1933年から1943年まで継続したという。³² その目的は、「朝鮮在住者の美術意識を高め、近代芸術に直接して豊かな生活に誘因す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³³ こうした大胆な活動が、朝鮮史編修や古蹟調査の事業と密接に連関していることもまた言うまでもないことである。³⁴

すでに、遺蹟が世俗の植民地国家の勲章としての新しい地位を与えられたことに言及した

我々が今、民族的一大覚醒をもったことは事実だ。しかしその覚醒はいまだ混沌だ。明瞭な自覚は当然、整った内容をもつはずだ。名前を求める前に実相を作るはずだ。名前も見つけられるであろうが、実相が伴うようにするはずだ。名前に大きな精神を備えた後には、もう一度実相に深い精神を整えるはずだ。精神から独立するはずだ。思想として独立するはずだ。学術で独立するはずだ。特別に自己を護持する精神、自己を発揮する思想、自己を究明する学術の上で絶対の自主、完全な独立を実現するはずだ。朝鮮人の手で「朝鮮学」をうち立てるはずだ。朝鮮の血が体内に巡り、朝鮮の気が表に立ちこめる、活潑な大朝鮮の經典を我々のところで、我々の力で創り出すはずだ。恥ずかしいということを知るはずだ。発奮するはずだ。自分を自分が知っておくはずだ。我々の生命の泉を我々の手で清めるはずだ。我々の栄光の太鼓を我々の手でたたくはずだ。

朝鮮で実地の遺物・遺蹟をもって学術的査究を試みるのは、光武6年(1902)に東京帝国大学の関野氏が建築調査に着手したのが始めだ。その結果がその翌々年に韓国建築調査報告として出された。隆熙3年(1909)に大韓政府で古建築物及び古蹟調査を着手するようになり、その時の因縁で関野氏がその任にあたるようになった。その結果として『韓紅葉』『朝鮮芸術之研究』『同統編』などが出された。その後、日本人に継承され、規模が漸次拡大され事業も大いに進捗した。これから先史・遺蹟・古墳・史蹟などの探査・研究・発掘・修補など諸方面で、各方面の専門学者の手で相当に見るべき成果が現れた。丙辰(1916)以来、年毎に出される調査報告書と、平安南道にある漢置郡及び高句麗の遺蹟に関する特別報告書、シベリアの古民俗の遺蹟に関する特別報告書などは全て、その勤労の産物だ。その中でも『朝鮮古蹟図譜』既刊七冊は、純粹の学術的編纂として貴重な内容をもち、学界に不朽の建樹となった。しかし朝鮮での古蹟調査事業一さらに古墳考究はいまだ草創に属し、不備と無秩序が甚だしい。学的な検覈を経て、学的な体系をうち立てようとするれば、前途はむしろ茫然となるであろう。しかし、この「茫然」という満たされない間があることが、実際は我々において、恥辱の烙印を消すようにできる証なのだ。我々の奮発努力の如何一するかしなにか、大か小か如何で、いくらでも過去を贖い、現在を改めて、将来を開拓することができる要諦となる。いまからでも遅くないので、これを出発点として、自己の真面目を如実に認識するよう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これ一つを以てしても、十分に世界学界に向かって我々の知的機能、学術的稟質を十分に現すことにもなるだろう。ともかく、我々が必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勿論だ。

人を羨むことのない素晴らしい古史代を山野の至る所にもっている我々は、一日も早くその論文を見分ける眼を取り戻すべきだ。その言葉を聞き分ける耳を研ぎ澄まさ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して、ここから湧き出る民族の神秘の美酒で乾いた生命をたっぷり潤すはずである。崔南善「朝鮮歴史通俗講話 4 古墳＝開題四」〈古墳〉(『週聞東明』第1巻第6号、原文漢韓混濁文、1922年10月8日)。ただし、上掲のような崔南善の嘆きにも拘わらず、植民地下で朝鮮人考古学者が養成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もとより「古蹟および遺物保存規則」により、盗掘以外に、朝鮮人の発掘が許されるものではなかった。

³²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前掲書、337頁)。

³³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前掲書、337頁)。李王職編「李王家徳寿宮日本美術品図録」(李王職、1933年)の序(篠田治策)にも、これに対応する言葉が見られる。

³⁴ 李美那「李王家徳寿宮日本美術展示」(前掲書)は、「展示」が実現される過程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それがもつ政治性、さらには当時における朝鮮側の反応や黑板の果たした役割などを明らかにしている。

が、技術的に優れた考古学の報告書が大量に作成されることで、その勲章は無限に、日常的に、複製され、それが国家の力を示すことにもなった。当時、こうした考古学は、複製技術の時代に成熟し、すぐれて政治的な政治的表象となっていたのである。³⁵ 総督府の古蹟図譜や古蹟調査報告の入念な編纂は極めて重要な意味を帯びていたというべきであろう。

藤田亮策によれば、寺内総督は、朝鮮古蹟図譜をすべて秘書官室に保管させて、内外の賓客に自ら署名して贈り、特に各国領事や外国の知名人には努めて広く贈ったとされるが³⁶、それが何を意味していたかは、改めて言うまでもない。勲章は列強諸國こそ認知さ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ある。

日本もまた19世紀末以来の帝国主義の潮流のなかで、植民地国家が歴史(考古学)と権力を結びつけたその特有の表象の仕方を注意深く観察し学んだのである。黒板は誰よりもこのことを熟知し、それを植民地朝鮮で実践したといってもよいであろう。

IV. 朝鮮総督府博物館

1915年9月、1896年に廃宮となっていた景福宮³⁷において施政5周年記念物産共進会が開催され、かつての王宮は、博覧会の会場となった。その際に、勤政殿の東に新たに美術館が建造され、物産共進会を利用して朝鮮古来の絵画・彫刻・仏像・仏具・書蹟工芸などの多くの美術品が蒐集陳列された。³⁸ 物産共進会では仮設建築が多く建立されたなかで、この美術館だけは永久的建築として残され³⁹、この年12月には、その時に展示された収集品を基礎に、朝鮮総督府博物館として開館した。

白亜の西洋式二階造りの建物は、正面に石段柱列を配し、内部は中央の大ホール中心にして、左右2室ずつ全部で6室に区切り、ここに主要陳列品を展示した。⁴⁰ また、昌慶宮内の李王

³⁵ Bededict Anderson(前掲書) 297頁。

³⁶ 藤田亮策「ビリケン総督—朝鮮の思い出(一)」、『親和』52、1958年8月)、同「朝鮮古蹟調査」(前掲書) 333頁。

³⁷ 景福宮は、朝鮮王朝の王宮として1395年に創建され、途中で開京への移都をはさんで1421年から文祿の役(壬辰倭乱)で1592年に焼失するまで、王宮としての位置を占めていた。その後、270年の長きにわたって放置されていた景福宮は、高宗の即位後、大院君の執政によって1865年から再建工事がはじまり、1868年7月に竣工すると、高宗が1896年にロシア公使館に遷御するまで、王宮が置かれた。

³⁸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前掲書) 334頁。

³⁹ 藤田亮策「ビリケン総督—朝鮮の思い出(一)」、『親和』52、1958年1月、2頁)によれば、共進会の美術館を博物館として常設することは、寺内総督の命令で最初から計画されていたもので、朝鮮ホテル設計のドイツ人技師により景福宮宮殿保存計画と共にその東側に大きな博物館建築設計図ができあがっていて、美術館はその正面玄関として考えられていたという。

⁴⁰ 博物館本館の建物は解放後、学院院・芸術院の所管施設として利用されたが、金泳三政権時代(1997年)に総督府庁舎とともに撤去された。

職博物館と同様に、景福宮内の殿閣が博物館施設として利用された。⁴¹

博物館事務室には、高宗の養母の居殿であった慈慶殿が利用され、景福宮正殿・勤政殿の背後にあった思政殿、萬春殿、千秋殿や殿廊は倉庫として用いられ、勤政殿の回廊には、近世の諸兵器、高麗石棺、石仏などが展示された。さらに修政殿には、大谷光瑞が西域から将来した壁画、遺物を展示し、慶会楼から光化門に至る空間には、朝鮮各地から搬入された石造の塔・碑・灯が並べられた。景福宮は「一二万坪余の大博物館」⁴²となったのである。

こうした展示施設をもった総督府博物館は、組織上、朝鮮総督府内務部の古蹟調査と総督府学務局編輯課の資料調査のふたつの事業を統一し、それらの事業で収集した遺物を陳列して、一般の観覧に供するとともに、朝鮮全土の古蹟調査と保存をはかるために寺内正毅総督の「熱心な援助」によって成立した。⁴³

総督府博物館設立の目的は、統監府時代から着手されていた国家事業としての古蹟調査事業によって収集、整理した確実な資料を陳列し、朝鮮文化の変遷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あった。⁴⁴ 総督府博物館の設立は古蹟調査事業と不可分の関係にあったのである。

総督府博物館が開館された翌年(1916年) 7月、すでに指摘した「古蹟及び遺物保存規則」が発布され、日本で初めての古蹟に対する取締・保存・調査の綱目を規定するなど、朝鮮総督府博物館の設立と共に、古蹟調査事業の法制上の整備や事業の本格的な組織化が進展した。総督府博物館の特徴は、独立した機関とせず、当初は総督府の庶務局に所属させ⁴⁵、その後に所属部署はしばしば変わったが、総督府所属機関としての位置は変わらなかった点にある。日本の敗戦によって閉館されるまで、独立した職制がなく、総督府所属の事務官が主任として博物館業務を統括し、2、3名の技師と5、6名の雇員を職員とし、必要最小限の人員で運営されていた。しかし、その業務は広範囲に及び、年次計画に基づく古蹟調査、寺院廟堂の大建築から塔灯・碑・礎・古墳・城柵の修理保存、図録・報告書・博物館報の印刷、博物館の陳列と陳列品の購入修補など⁴⁶に加えて、発掘、研究まで多岐多様な役割を担っていた。

41 総督府博物館の展示方式やその内容については、朝鮮総督府博物館「博物館略案内」(朝鮮総督府、1931年)、小泉顕夫「朝鮮博物館見学旅日記」(『ドルメン』満鮮特集号、1933年4月)、「朝鮮総督府博物館」(『博物館研究』8-4、1935年4月)、有光教一「私の朝鮮考古学」(姜在彦・李進熙編『朝鮮学史始め』青丘文化社、1997年)などを参照。

42 藤田亮策「朝鮮古蹟調査」(前掲書) 334頁。

43 藤田亮策「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朝鮮』199、1931年12月) 91頁。

44 朝鮮総督府博物館「博物館略案内」(前掲書) 1頁。

45 博物館および古蹟調査の事務は、当初、総督府庶務局総務課に属したが、後に庶務部文書課に移して、中枢院書記官から兼任の博物館主任を代表として統一し、博物館嘱託以下の博物館員によって一切の事務を執行した。次いで1921年10月に、事務分掌規定が改正され、それまで庶務部文書課に属した博物館および古蹟調査事業と、学務局宗教課所管の古社および古建築保存補助に関する事務は、学部局古蹟調査課に置かれた。さらに、1924年に古蹟調査課の廃止によって、博物館と古蹟・古建築物・名勝天然記念物調査保存事業は、学務局宗教課に移管された。藤田亮策「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朝鮮』199、1931年12月) 91頁。

46 藤田亮策「朝鮮文化財の保存」(『朝鮮学報』1、1951年5月)。

ところで、総督府博物館は、既述のごとく、総督府自らが調査研究した確実な資料を陳列し、朝鮮古文化の特色と、大陸ならびに日本との関係を学術的に展示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たが、この点が美術工芸館としての李王家博物館との違いと認識されていた。⁴⁷ しかしながら単に、展示内容や展示方法の違いだけでは、1908年に設置された李王家博物館とは別に、あえて総督府博物館を新設する理由にはなりえない。

そこで留意すべきは、黒板勝美が1912年頃より、唱え続けていた「国立博物館」構想である。博物館はもはや雑然と凡百の品物を集めて陳列するという時代ではなく、そのような陳列に満足せずに、いかに意義ある博物館を創りえるかを研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黒板は提起していた。そして博物館に史蹟保存がともなわなければその効果は過半を失うものであり、ヨーロッパ諸国ではこれを並行させていないところはなく、そればかりか「国立博物館が其事務を監督して居て、各地の小博物館を始め、史蹟遺物の保管に任じて居る処がある程である」と力説していた。⁴⁸

この点は1918年に、さらに明確な主張となってあらわれ、「古墳発掘や、その発掘品の始末はまた国立博物館の管掌に属すべき物である。場合によっては国立博物館が進んで古墳などの調査に当たらねばならぬ」といい、「史蹟保存もまた国立博物館の任務の一つである」ことが強調されている。⁴⁹ 要するに、博物館と古蹟の調査事業と保存管理とが国立博物館という一つの機関に統合さ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のである。

総督府博物館の主任として長年にわたって統括責任者を務めた藤田亮策は、朝鮮においては「内地の夫れに一步を先んじて、統一的な調査と、精確な其の結果を報告し得たこと」を自負し、「国として支出して国の事業として調査・保存・陳列の三つの仕事を合併して」一つの機関で、全く理想的な研究がとげられてきたと述べている。つまり、総督府博物館は、内地ではなしえないような、黒板が目指した国立博物館が行うべき業務が先駆的になされていたとみることができる。⁵⁰ 黒板は「帝室博物館はどこまでも帝室御物を陳列して国民に拝観せし

⁴⁷ 高木博志「日本美術史と朝鮮美術史の成立」(『国史の神話を超えて』ヒューマニスト社、2004年、ソウル)によれば、総督府博物館が「文化史的研究」に則り陳列するのに対して、李王家博物館は、高麗・李朝の「美術的鑑賞的」に配列する方針が、1925年11月の湯浅政務総監二供開書類(宗教課)(小川敬古文書1208、京都大学工学部所蔵)に見られるという。

⁴⁸ 黒板勝美「博物館について」(『東京朝日新聞』1912年秋(原載)、『虚心文集』4、吉川弘文館、1939年(所収))481-487頁。このような黒板の提言どおり総督府博物館には、慶州分館、扶餘分館が同一系統の下に設置され、さらに開城府立博物館、平壤府立博物館も「総督府博物館と十分な連絡をもって陳列に万全を期してゐた」という。斎藤忠「朝鮮に於ける古蹟保存と調査事業とに就いて」(『史蹟名勝天然記念物』15-8、1940年8月)45頁。

⁴⁹ 黒板勝美「国立博物館について」(『新公論』33-5、1918年5月(原載)、『虚心文集』4、1939年、吉川弘文館(原載))516頁。

⁵⁰ 藤田亮策「朝鮮考古学略史」(『ドルメン』満鮮特集号、1933年4月)13頁。藤田によれば、総督府博物館が「僅かな経費で而かも十人に足らぬ少い人件で、古社寺国宝保存会・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会と帝室博物館との三大事業に比較すべき仕事を全鮮にわたつて」要請されていたことが指摘されており、同論文を通して、総督府博物館が、黒板の「国立博物館」構想にそったものであったことが理解できる。

むるところで、皇室に対する国民の思想を益々強く、且つ深からしむるには最も必要なる機関」であって、一方それとは別に、国家もまた国立博物館を建てて、保存に力をつくし、古寺社の国宝を陳列するための設備や、個人の蒐集物を国家に引き上げて陳列する必要があると主張していた。⁵¹

したがって、黒板が帝室博物館(Royal Museum)とは別の国立博物館(National Museum)の必要を説いたように、1908年に設立された李王家博物館とは別に、国立博物館としての役割をもつ博物館として、総督府博物館が設立されたとみることができる。実際に、総督府博物館は、植民地に設置されたものではあったが、「調査の方法においても、最も良い経験を持ち、精密な学術的研究においても、内地の調査研究に与えた影響の大きいことは何人も認める」意義をもつと当事者によって認識されていたのである。⁵²

そこで、総督府博物館がめざした学術性に関して軽視できないのは、その展示の仕方である。後に平壤博物館長となった小泉顕夫は、本館にある6室ある展示室の中でも重要なのは、「三国時代古墳出土品」と「楽浪帶方郡時代遺物」の二つの部屋にあ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が⁵³、この博物館の陳列を順次見てゆけば、「朝鮮半島が三国時代に至る前に、続々と漢族が移住して、そこに漢人の植民地が作られた」楽浪帶方郡時代から、「後半期は儒学の影響や相継いだ戦乱と内部的党争などのために産業も工芸も衰えて、見るべきものが少ない」朝鮮時代が観覧者に印象づけ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たのである。⁵⁴

こうした古代と朝鮮王朝後期に対する見方は、朝鮮総督府が進めていた歴史編纂事業と古蹟調査事業が目指していたものでもあった。すなわち、朝鮮総督府は、1916年『朝鮮半島史』編纂事業に着手するが、初代朝鮮総督・寺内正毅の「朝鮮半島史編纂要旨」によれば、朝鮮半島史編纂の主眼は、第一に、日本人と朝鮮人が同族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第二に、古代より時代を経るにしたがって疲弊・貧弱に陥ったことを述べ、併合によって人生の幸福を全うするに至ったことを論述することにあると明記している。⁵⁵

古蹟調査事業は、朝鮮史編纂が重視した歴史の起源問題に考古学上の根拠をあたえるものであり、いわば車の両輪の関係にあって、朝鮮支配の正当化に重要な役割をはたした。こう

⁵¹ 黒板勝美「国立博物館について」(前掲誌) 516頁。1900年に帝国博物館は帝室博物館と改称された。「帝国」を「帝室」と改めたのは、帝国議会、帝国大学、帝国図書館などが政府の所管であるため、帝室所属の博物館とそれらを区別して、その所属を明瞭にさせるためであった。なお、このときの新官制によって、工芸部が廃止、天産部も整理され、歴史・美術・美術工芸の三部が中核となって、歴史美術館としての性格が強められることになる。東京国立博物館編『東京国立博物館百年史』(東京国立博物館、1973年) 307-311頁参照。

⁵² 藤田亮策「朝鮮考古学略史」(前掲誌) 14頁。

⁵³ 小泉顕夫「朝鮮博物館見学旅日記」(前掲誌)。

⁵⁴ 朝鮮総督府博物館「博物館略案内」(朝鮮総督府、1931年)。

⁵⁵ 李成市「コロニアリズムと近代歴史学—植民地統治下の朝鮮史編纂と古蹟調査を中心に」(『植民地主義と歴史学』刀水書房、2004年3月)。

した二つの事業の指針を定めたのは寺内総督であり、それを積極的に推進したのが黒板勝美であった。⁵⁶ 黒板は誰よりも朝鮮の歴史の起源を問題にし、その画期が楽浪郡の設置にあることを繰り返し問題にした。⁵⁷

また同時に黒板は、近代歴史学と考古学を駆使することによって、朝鮮人の民族精神を鼓舞する史書に対抗し、韓国併合の正当化を歴史編纂と古蹟調査事業によって積極的にすすめていた寺内総督の政策⁵⁸を、学術面で支えた。

景福宮に設置された総督府博物館は、こうした日本の朝鮮支配に関する国家的事業の成果を展示する場となったのである。そこは、朝鮮王朝建国以来の神聖なる空間であり、末期に至り王朝最後の閃光をとどめた権力の象徴空間であった。景福宮で開催された施政5周年記念朝鮮物産共進会によって、かつての王宮としての空間は再組織化され、この場所に埋め込まれた王室の権力を無化していった。さらに宴の後に残された白亜の殿堂は、博物館として利用され、そこに歴史的由来の明確な遺物を展示することによって、時間と空間の管理者が誰であるかを如実に物語るモニュメントにしたてあげられ、かつての聖なる空間は、全く新たな空間を形成することになった。

総督府が発掘した楽浪郡以来の古代遺跡・遺物は、檀君建国以来の悠久の歴史を訴え、日本の支配に抵抗した知識人たちにも衝撃的な威力を発揮していた。1920年代に檀君論を展開した崔南善は、総督府の古蹟調査事業に対して「恐らく世界の人類によって永遠の感謝を得る出来事かも知れず、また我々もそこに加わり、そのくらいの感謝を捧げるのが当然かも知れない」と言いつつ、「日本人の手ではじめて朝鮮人生命の痕跡が闡明されたことは、どれだけ大きな民族的羞恥であるか（傍点筆者）」と悲嘆している。⁵⁹ ここにも朝鮮人にとって、古蹟調査事業と、総督府博物館における遺物展示がもっていた影響力の大きさをかいま見ることができる。

V. おわりにかえて－植民地主義と総督府博物館

朝鮮総督府博物館は、本稿で述べたように日本で初めて設立された実質的な国立博物館

⁵⁶ 朝鮮総督府『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纂ノ要旨及順序』（朝鮮総督府、1916年、4頁）には次のように記されている。「朝鮮半島史ノ主眼トスル所ハ大体左ノ如シ。第一 日鮮人ノ同族タル事実ヲ明スルコト 第二 上古ヨリ李朝ニ至ル群雄ノ興亡起伏ト歴代ノ革命易姓トニ依リ衆民ノ漸次疲憊ニ趣キ貧弱ニ陥リタル実況ヲ叙シテ 今代ニ及ホシ聖世ノ恵沢ニ倚リ始メテ人生ノ幸福ヲ完ウスルヲ得タル事実ヲ詳述スルコト」。

⁵⁷ 黒板勝美「大同江附近の史蹟」、『朝鮮彙報』1916年11月。

⁵⁸ 藤田亮策「ビリケン総督－朝鮮の思い出(1)」(前掲誌)。

⁵⁹ 崔南善「朝鮮歴史通俗講話 四 古墳＝開題四」(前掲書)。注 31参照。

であったが、その設立後も、黒板は日本全国に12カ所の国立博物館を提言しており、その際に、あたかも朝鮮総督府博物館は、そのような地方に置くべき国立博物館の典型であるかのように論じている。⁶⁰ 黒板には植民地朝鮮は、日本に組み込まれた一地方という考え方が明確にあった。

日本の文明化による朝鮮の統合と国民化は、黒板の歴史編修や、史蹟遺物保存、文化財政策にも発揮されている。たとえば、徳寿宮に設立された李王家美術館(1932年)には、石造殿西館に、朝鮮古美術が展示され、東館に展示されている明治・大正・昭和以来の「現代日本美術の精華」が観覧できるように渡り廊下で連結され、両者を見ることで「半島文化の啓発向上に資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た。このような近代日本美術の展示を企画したのが黒板勝美であった。⁶¹

ところで黒板は文化財が国民意識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博物館に入って、昔の非常に優れた画家彫刻家などの技術に憧憬する、或はまた神社寺院に行き、幽玄な感にうたれ信仰の念を起す、そしてその建築、建築の中にある装飾、それらが頭脳を刺激して倍々信仰を深くするという風にならしめんが為である。一面より言えば、然ういう色々の物を保護することは、同時に国民自身の自衛である、国民をして精神的に独立心を發揮せしめる。又然ういう美術品を有し、歴史的遺物を有することは、国民的自負心を強くして、それを以て外国人と相対せしめ、また外国へ美術品を売らぬという如き思想を起させなければならぬのである。⁶²

徳寿宮の李王家美術館において、朝鮮の古美術展示から「現代日本美術の精華」の展示へと渡り廊下で連結されたとき、この観覧者であった者(朝鮮人)の「国民的自負心」について、黒

⁶⁰ 黒板勝美「国立博物館について」(前掲誌)。なお、朝鮮総督府博物館がどのような役割を期待されていたのか、それが黒板の構想そのものであったことを裏づけるものに藤田亮策「朝鮮考古学略史」(『ドルメン』満鮮特集号、1933年4月、13頁)の次の記述が参考になる。「日本の考古学は個人的の発掘と盗掘とによつて発達して来たとも言へる。然るに朝鮮ではどこまでも国の事業として発達し、極力盗掘・私掘による古蹟の破壊を防止して来て居る。此点に於いて朝鮮は内地の夫れに一步を先じて、統一的な調査と、正確な其の結果を報告し得たことに於いて意を強ふるものである。更に又博物館と古蹟の調査事業と保存管理とが一つの機関で行はれて、調査の結果を基礎として保存の策を講じ、発掘調査によつて得られた確実な資料を陳列紹介するといふ順序で、全く理想的な研究が遂げられて来た訳である。所が僅かな経費で而かも十人にも足らぬ少ない人件で、古社寺国宝保存会・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会と帝室博物館との三代事業に比較すべき仕事を全鮮に亘つてやれというのであるから極めて困難な事業である」。

⁶¹ 李成市「朝鮮王朝の象徴空間と博物館」(前掲書)。

⁶² 黒板勝美「史蹟遺物保存に関する研究の概説」(『史蹟天然記念物』1-3、1-6、1915年(原載)、『虚心文集』第四、(所収)407頁)。

板がいかなる感慨を持っていたかは不明であるが、ここに黒板の大きな矛盾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

というのも、支配の対象である異民族に対し、支配の合理化のために国民教化の装置(国史、国立博物館)によって、国民化をはかろうとすることは、もはや精神の問題ではなく、技術の問題であるとみなさざるをえないからである。

黒板が構想した国民意識形成のための歴史学の教化の対象は、日本人に限られるものではなく、異民族の朝鮮人にまで国民化のプロジェクトは拡大されていたのである。朝鮮総督府博物館や李王家美術館の展示の構造に端的に見られるように、黒板の国民教化のための歴史学は、精神の問題というよりは、優れて技術的な問題となるほかはなかった。そのような技術によって生み出される「精神的な独立心」とか「国民的自負心」は異民族である朝鮮人にとって二重性を帯びざるをえなかった。近代朝鮮に萌芽していた原初的なナショナリズムと帝国臣民としての国民意識との二重性である。つまりは、朝鮮支配のために動員した彼の歴史学は、この点で大きな矛盾を抱え込まざるをえなかったのである。

別な面から見れば、近代日本の国民強化のための歴史学は、一国で完結するのではなく、異民族である朝鮮の支配と深く関わっていたことが浮き彫りになってくる。そもそも、植民地で展開された古蹟調査事業や総督府博物館は、黒板が見聞し、自己の歴史学の構想モデルとなった20世紀初頭のヨーロッパ諸国の歴史学と考古学は、植民地との関係のなかで制度化されたものであった。⁶³ 黒板は、これらのモデルを植民地朝鮮にもちこみ、異民族の支配と教化のために活用した。

黒板は植民地朝鮮に、近代日本の現実的な課題であった国民教化の歴史学・考古学を持ちこみ、異民族の支配と教化のために活用したが、注目すべきは、それに止まることなく、さらに進めて日本内地ではなしえない学問的な信念を植民地朝鮮において試行している事実である。そのことを雄弁に物語るのが古蹟調査事業と朝鮮総督府博物館である。この二つの政策の中には、遺物保存法のように、日本国内では容易にはなしえなかった学問的な信念を、制度化の手続きを必要としない植民地朝鮮において嗜好した者がおり、こうした朝鮮における試行を経て、日本にもたらされるという経緯をたどるものがあった。その一方で、国立博物館構想のように、日本で実現されることなく、解放後の韓国で実現されたと言えるものがあった。植民地朝鮮における古蹟調査や博物館を通して知りうることは、黒板が見聞したヨーロッパ列強諸国と同様に、他民族、他国の支配との関わりで、国民教化のための歴史学・考古学が、宗主国と被植民地の各々により一層洗練され先鋭化していったという事実である。

⁶³ 李成市「コロニアリズムと近代歴史学」(前掲書)。

